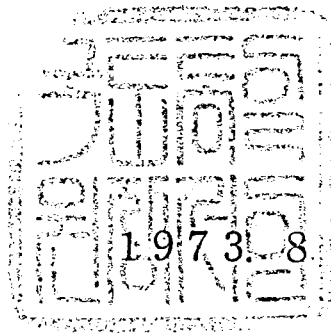


국통 73-1-73

南北接觸의 類型定立

—交流類型에서 본 戰略構圖設定을 中心으로—



國土統一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上半期 學術用
役に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年 8月

研究者：韓 昇 洙

目 次

第1章 序 論	5
第1節 問題의 提起	7
第2節 研究의 方法	11
1. 研究의 方法	11
2. 研究의 前提	12
第2章 交流戰略構圖設定을 為한 理論的 背景	17
第1節 對內的 背景	19
1. 政治發展의 段階說	19
2. 政治發展과 統一	22
第2節 南北韓關係의 背景	23
1. 機能主義 理論	23
2. 機能主義的 接近과 統一	26
第3節 國際的 背景	30
1. 收斂說	30
2. 平和共存論	31
第3章 對北交流戰略의 目標 및 基本方針	39
第1節 統一政策推進上의 問題點과 交流戰略의 目標	41
1. 國際共存秩序와 韓半島의 自主的 統一秩序間의 調和問題	41
2. 南北間의 自主統一 努力에서의 相衝	44

가. 南北間의 政治. 文化面에서의 相衡.....	44
나. 統一接近方式과 그 理論에서의 相衡.....	45
다. 南北의 統一觀의 相衡.....	47
3. 國論統一上의 問題點.....	49
第2節 交流戰略의 基本方針.....	50
1. 民族的 側面.....	50
2. 制度的 側面.....	53
3. 戰術的 側面.....	55
第4章 段階別 交流戰略 構圖.....	59
第1節 南北交流戰略의 段階設定.....	61
第2節 段階別 交流戰略의 展開方向.....	63
1. 南北關係의 競爭的 現實化: 第1段階.....	63
가. 對北關係.....	63
나. 對外關係.....	64
다. 對內關係.....	66
2. 南北關係의 制度的 正常化: 第2段階.....	68
가. 對北關係.....	68
나. 對外關係.....	70
다. 對內關係.....	71
3. 南北關係의 體制的 同質化: 第3段階.....	72
가. 對北關係.....	72
나. 對外關係.....	74

다. 对内關係	75
4. 政治的 單一化：第4段階	76
가. 对北關係	76
나. 对外關係	78
다. 对内關係	79
第5章 結 論	87

第 1 章 序 論

第 1 章 序 論

第 1 節 問題의 提起

一民族 一國家의 國家觀念이 現實的인 政治名分으로 使用되고 있는 限, 南北韓은 共히 統一을 最高의 政治的 名分으로 標榜할 것이라는 것은 否認하기 어렵다. 또한 政治적으로 自由, 共產의 ideology가 存立하는 限, 南北韓은 各己政治体制의 正統性을 拋棄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韓半島가 갖는 이 두 가지의 特性은 南北關係를 糾明하는 어떠한 狀況에서든 分명한 現實로 남게 된다는 것은 말할 必要가 없다. 註1)

南北韓이 既往의 武力的인 對決關係에서 對話의 關係로 轉換한 以後에도 上記의 特殊性은 變함이 없다. 南北對話가 이루어지기 始作한 以後 最近 몇 年間의 南北關係의 狀況을 分析하여 볼 때 대체로 雙方이 취하는 基本立場은 다음과 같이 說明할 수 있을 것이다. 註2)

첫째 統一政策面에 있어서 武力的인 統一을 外面上 相互 排除키로 合意한 것 以外는 南北이 各各 自己主導下의 「自由民主主義 單一政府」와 「人民民主主義 單一政府」樹立을 最終的인 目標로 하고 있으며,

둘째 統一原則面에 있어서 雙方이 自主·平和·民族大團結에 合意하고, 統一을 平和的 方法으로 達成키 爲한 諸般 努力을 傾注할 것에 合意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로 統一의 接近方法에 있어서는 雙方이 完全히 相互 排他的인 立場을 取하고 있다. 即 北韓은 政治·軍事問題의 優先的 解決은 主張하여 大民族會議의 소집이나, 聯邦制樹立으로 誘導하므로서 그들의 赤化統一의 最終目標 達成을 實現하려는 反面에 韓國은 南北이 根源的으로 가지는 不信, 憎惡感을 順次的인 交流와 接觸을 通해 해소시켜 나가므로서 궁극적인 自由化 統一을 實現하려고 하고 있다. 註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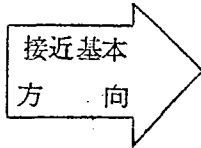
이러한 南北韓間의 基本立場의 差異는 前述한 韓半島의 特性 -하나의 民族, 두개의 ideology-에 根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南北은 各己 雙方의 目標達成을 爲하여 現實的인 韓半島 外的 狀況 -國際情勢- 에 맞추어 接近方法을 變更시킨 것에 不過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경우를 想定해 볼 때 現實的으로 對話의 不可避性을 外的인 狀況變化에 두므로서 對內的으로는 우리의 體制를 否定하는 基本的 立場을 縱統 固守할 餘地가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狀況에서 우리의 政策樹立方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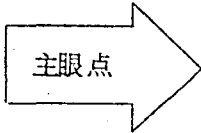
- ① 現實的으로 接觸과 對話를 維持하고
- ② 接觸과 交流를 通한 自由化에로의 北韓社會를 誘導하고
- ③ 同時에 共產化에로의 誘導可能性의 効果的인 저지對策을 樹立해야 한다는 것이 分明하다. 이러한 우리의 政策을 接近 基本方向과 主眼點으로 分類하여 表示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우리의 政策樹立方向



南北對話 + “ α ”

- 가. 自由化統一原則 推進
 - 南北對話를 通해 自由化로 誘導 (攻邊戰略)
 - 共產化에 對備한 對策樹立 (防禦戰略)



交流를 통한 政策樹立

- 가. 對北交流를 통한 自由化政策 樹立
- 나. 北韓의 共產化 統一政策의 效果的 對策樹立
- 다. 南北對話의 維持 擴大方案 樹立
 - 緊張緩和 및 戰爭危險 除去를 爲한 時代的 要請에 副應
 - 統一政策面에서 한번도 自由化 政策이 共產化政策보다 有利하게 展開될 경우

以上の 政策樹立 方向에서 우리의 當面目標는 諸般接觸과 交流를 爲한 接觸戰略, 對話維持戰略, 對北對策의 세가지 側面에서 具體的인 戰術을 樹立해야 할 것이라는 論理的 歸結을 낳는다. 即, 接觸戰略面에서는 自由化의 波及度를 中心으로 效率性과 實現可能性을 檢討한 接觸項目을 選定하고, 對話의 維持戰略面에서는 相互體制維持의 前提下에서 接觸項目을 選定하고, 對北對策面에서는 共產化의 目標에 適合한 項目을 選定하여 이 세가지 側面에서 選定된 各 項目間의 聯関性을 中心으로 目標의 우선순위에 따라 類型化하므로서 우리가 展開시켜나가야 할 攻擊・防禦戰略을 効果적으로 並行 시킬 수 있을 것이다. (註 3)

이러한 立場에서 우리의 交流戰略이 體系化될 때 統一을 目標로 한 南北對話에서 恒時 優位의 立場을 固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純粹한 交流政策의 一斷面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戰略이 樹立되기 爲한 前提作業으로 韓半島의 內・外的인 全般的 狀況에 對한 假定 (assumption)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分명한 事實이다.

本 研究는 여기에 問題의 所在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南北對話를 主導하기 爲한 具體的인 交流戰略樹立에 前提가 되는 戰略的 構圖에 對한 像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本研究는 北韓의 對南戰略에 對한 假定, 韓國의 對內的 政治發展에 對한 假定, 國際的 狀況變化에 對한 假定에 基盤한 前提의 設定을 通하여 國際面, 對北面, 對內面의 세가지 側面을, 交流戰略樹立을 爲한 從屬 變數로 處理하므로서 戰略構圖을 마련하려는 데 그 目標을 두었다.

第2節 研究의 方法 및 前提

1. 研究의 方法

南北關係를 規制하는 것으로는 다음 세가지 變數를 考慮할 수 있다. 하나는 強大國 政治가 적어도 國際社會의 政治的 價值로 存在하는 限 南北關係 亦是 韓半島의 外的狀況과 調和될 수 있어야 한다는 點에서 國際的 變數가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最近의 緊張緩和를 標榜하는 國際潮流가 平和的 共存이라는 名分 아래 現實적으로 分斷諸國과 紛爭地域에 對한 強大國의 壓力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2次大戰以後 兩極體制 또는 冷戰體制가 새로운 多極化 내지 平和共存體制로 轉向해 가므로 勢力均衡 (balance of power)의 論理가 다시 國際政治의 理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南北關係의 어떠한 狀況도 1次的으로 國際的 變數를 考慮해야 할 必要가 있다. 註4)

둘째로는 北韓의 內部態勢面에 對한 考慮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北韓의 現在 그리고 未來에 對한 正確한 假定 (assumption)은 우리가 對北戰略을 樹立하는 데 基本的인 條件이 되며, 그리고 交流戰略의 直接的인 對象이 된다.

셋째로는 우리의 自体變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政治發展에 對한 豫測, 經濟發展에 對한 豫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세가지 變數 - 國際情勢 · 北韓內部態勢, 韓國內部態勢 - 는

앞으로 研究하고자 하는 交流戰略構圖에서 考慮되어야 할 基本的 指標가 된다. 다시 말하면 對外, 對北, 對內的인 考慮變數를 그것이 各各 獨立變數로서 交流戰略에 미치는 影響에 關心을 두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交流戰略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이러한 세가지의 變數를 어떻게 우리의 目標로 誘導해야 하느냐는데 研究의 焦點을 두었다.

2. 研究의 前提

對北交流戰略 構圖 設定에 있어서 基本指標가 되는 세가지의 變數에 對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前提위에서 出發하였다.

첫째로, 國際面에 있어서는 脫ideology의 現實主義化 傾向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것은 制度的인 平和共存 追求를 目標로 할 것이라는 豫測이다. 이것을 다시 軍事面, 政治面, 經濟面으로 分離시켜 볼 때 軍事的으로는 緊張緩和가 主要 關心事가 될 것이며, 經濟的으로는 實利追求가 目標가 될 것이고, 政治的으로는 現狀凍結이 그 目標가 될 것이다.

둘째로, 北韓의 態勢面에 있어서는 「南朝鮮 革命」을 통한 自主的 赤化統一의 基本目標가 繼續될 것이라는 豫測이다. 이것은 人民民主主義 革命이 北韓의 統一原則으로 繼續될 것이라는 意味이다. 이것을 政治, 軍事, 經濟面으로 分離해 볼 때 우선 政治面에 있어서는 南北關係의 現狀打破 努力이 繼續될 것이며 具體的으로는 南北의 現政治制度가 暫定的으로 存続한다는 前提에서 最高民族會議

또는 大民族會議을 構成하므로서 聯邦制 實施로 誘導하려 할 것이다. 軍事面에 있어서는 外形上 軍事的 緊張緩和을 主張하면서 平和協定締結, 軍縮, 駐韓 美軍撤収를 貫徹시키려 할 것이다. 그리고 經濟 및 文化面에 있어서는 經濟·文化的 広範한 合作을 繼續主張하되 政治·軍事的 問題를 先決條件으로 經濟·文化交流 實踐을 主張할 것이며, 이러한 交流戰略은 多方面的인 南韓内部에 統一戰線을 構築하는 基盤으로 利用하려 할 것이다. 註5)

세째로, 우리의 内部態勢面은 北韓이 赤化統一을 目標로 하는데 比해 自主的, 平和的方法에 依한 漸進的 統一을 實現하는 데 目標을 둘 것이다. 그러기 위해 적어도 政治的 現狀打破 努力을 하되 北韓의 경우와 달리 南北韓間의 異質的 要素를 克服하고 統合要素를 摸索하므로서 單一國家를 形成하려는 데 對한 關心을 集中할 것이다. 이것은 南北韓의 統一努力을 民族的 次元에서 同質性을 強化하는 대신 政治的 次元에서 南北의 理念的 對立要素를 잠재화시키고, 民族的 次元의 調和追求를 궁극의 統一理念으로 昇華시켜 보자는 努力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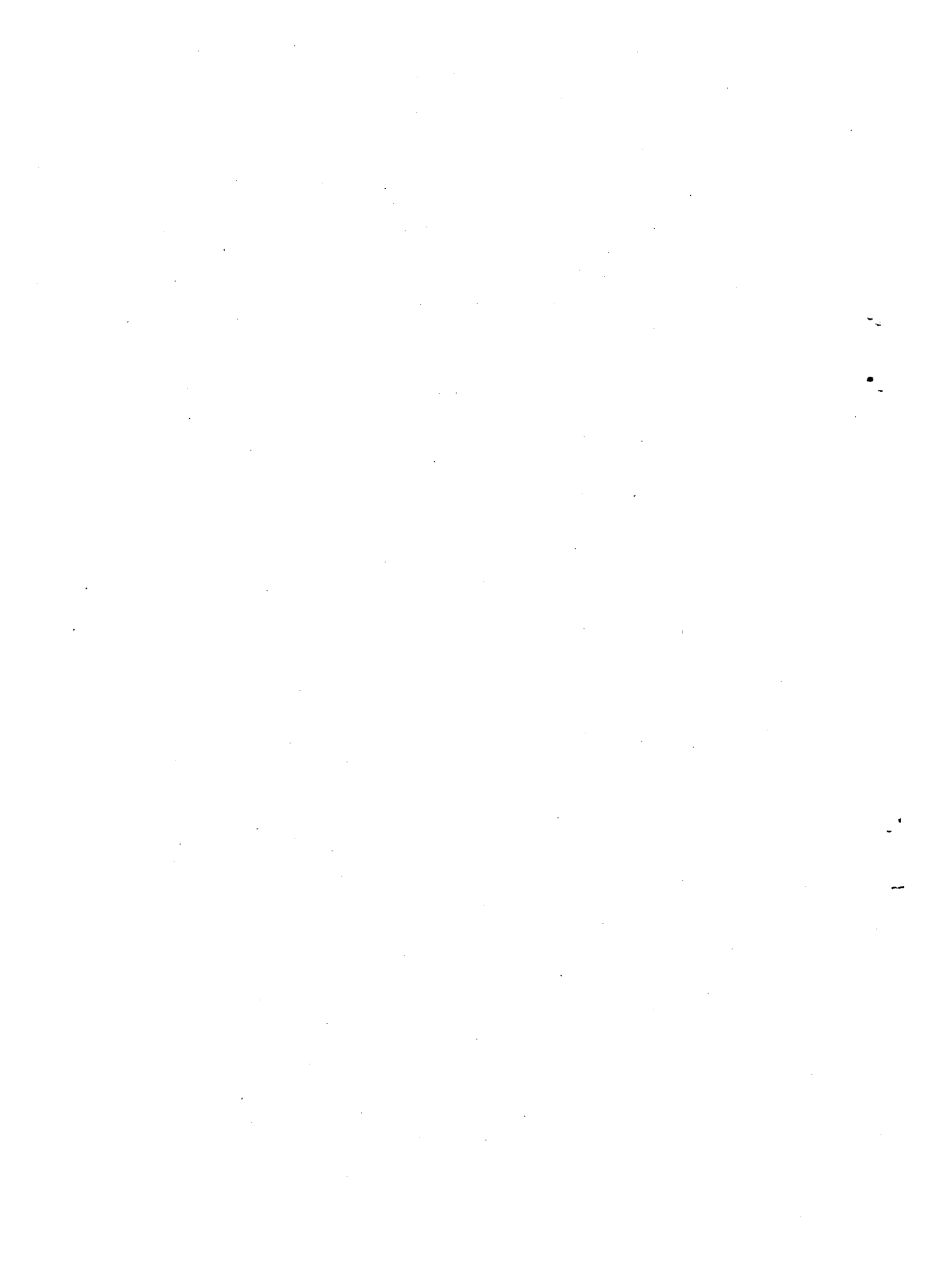
그리고 軍事的으로는 實質的인 軍事的 緊張緩和 努力에 注力할 것이고 이것은 相互不信解消, 理解信賴基盤構築, 北韓의 人民革命 戰略 拋棄 誘導, 國際的 安保環境造成에 關心을 둘 것이다.

經濟面에서는 南北間의 經濟·文化的 次元에서 南北交流를 擴大하려 할 것이고 南北經濟共同體 形成을 窮極的 目標로 指向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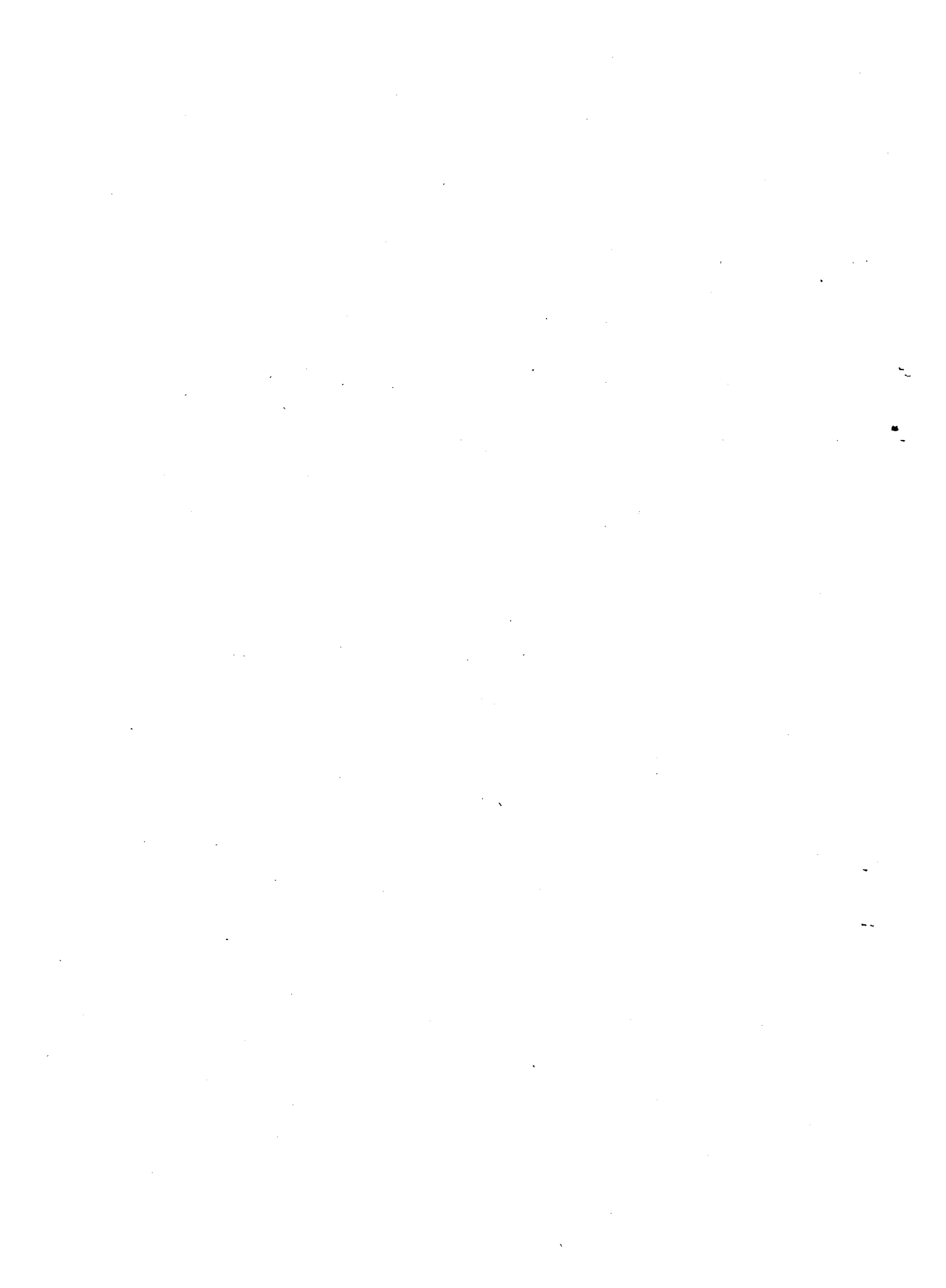
이상의 前提는 南北對話以後의 諸般 情勢分析을 通하여 얻어진
것이며 앞으로 展開할 交流戰略構圖의 前提가 된다.

「註」

- 註 1) 이것은 南北關係의 2重的構造로서 “理念의 次元”과 “民族의 次元”을 말하는 것으로, 具本泰, 南北接觸을 위한 理論의 定立, 서울大學校行政大學院學位論文, 1973, pp. 30 ~ 31 參照
- 註 2) 朴奉植, 金容九, 政府의 3段階統一接近 推進方案, 國土統一院, 1972 參照.
- 註 3) 接觸項目에 關해서는 具本泰, 前掲論文, 第1章第4節 「概念의 定義」 參照
- 註 4) 李榮一, 南北赤十字會談 政策形成에 關한 考察, mimeographed, pp. 21 ~ 31
- 註 5) 北韓態勢에 對한 豫測은 여러資料를 綜合하여 얻은 것이다. 代表的인 것으로는 國土統一院, 北韓의 統一政策과 對南戰略 (統一政策資料 Ⅷ), 1972. 參照



第2章 交流戰略構圖設定을 爲한
理論的 背景



第2章 交流戰略構圖設定을 爲한 理論的 背景

第1節 對內的 背景

1. 政治發展의 諸段階

Lucian W. Pye는 그의 著書 「政治發展의 諸局面」에서 政治發展에는 10가지의 見解가 있음을 指摘하였다. 註1) 즉 Pye에 依하면

- ①政治發展을 經濟的發展의 政治的 必須條件으로 보는 見解,
- ②産業社會의 典型的인 政治로 보는 見解
- ③政治的 近代化로 보는 見解
- ④國民國家의 形成으로 보려는 見解
- ⑤行政과 法治의 發展으로 보는 見解
- ⑥大衆動員과 大衆參與로 보는 見解
- ⑦民主主義 建立으로 보려는 見解
- ⑧安定과 秩序있는 變化로 보는 見解
- ⑨資源을 動員할 수 있는 能力으로 보려는 見解
- ⑩多元的인 社會變化 過程의 한 側面으로 보는 見解의 10가지의 多樣한 見解가 있음을 指摘하고 있다.

이에 比해 A.F.K.Organski는 「政治發展의 諸段階」에서 政治發展의 定義를 「國家의 人的 物的資源을 政府가 國家目標을 위하여 利用하는 경우 效率의 增大를 意味한다」고 하였다. 註2)

勿論 이 경우 政府란 民主的인 政府를 意味하고 國家目的은 合理的인 경우를 말한다. Organski의 立場은 이러한 政治發展이 4 段階를 거쳐 發展한다는 것이다. 註 3)

第 1 段階를 初期統一의 政治 (the Politics of Primitive Unification), 第 2 段階를 工業化的 政治 (the Politics of Industrialization), 第 3 段階를 國民福祉의 政治 (the Politics of National Welfare) 第 4 段階를 豊요의 段階 (the Politics of Abundance) 로 나누고 있으며 “여러나라들은 반드시 이 4 段階의 政治發展段階를 通過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놀랄만한 事實은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發展은 모두 똑같은 方向으로, 即 工業化 高度의 生産性, 높은 生活水準의 確保에로, 그리고 政治的 複合性, 政治的 効率性, 國家에의 依存의 增大.....에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事實이다” 라고 記述하고 있다. 註 4) 그리고 이명한 나라도 이러한 諸段階를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 이를테면 第 1 段階로 부터 第 3 段階로 비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2. 3 段階를 거치지 않고 第 4 段階로 비약할 수는 없지만 反面에 發展의 속도를 빠르게 하든지, 發展의 段階를 壓縮시키든가, 또는 諸段階를 重複 (overlap) 시킬 수는 있다는 것이다. 또 앞 段階의 課業이 아직 끝나기도 前에 다음 段階의 課業에 착수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初期統一의 政治段階는 國民國家形式 (Nation-State building) 段階로서 工業化 以前의 經濟的으로 發展하지 못한 段階를 말하고

있다. 이 段階에서는 國家目的이 國家統一의 實現에 있으므로 國境內의 모든 領土와 人民을 支配하는 中央集權的 政治體制를 確立하려는 段階이다.

第2段階에서는 國家의 機能을 값비싼 大衆의 희생을 통한 經濟的 近代化에 두며 이러한 目標가 國家에 따라서 産業化를 指向하는 方法에서 差異가 있음을 指摘하고 있다. Organski 에 依하면 傳統的인 西歐國家의 産業化類型은 “몸에 옷을 맞추는”方式, 即 國家에 環境을 適應시키는 類型이며, 오늘날 新生諸國들의 産業化 類型은 “옷에 몸을 맞추는”方式 即 環境에 國家가 適應하는 類型이 一般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新生諸國의 경우는 이때 政府의 선도적 役割이 並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註5)} 따라서 新生諸國은 그 段階를 達成하기 爲해 一定한 Blue print (청사진)을 作成해 놓고 企劃(planning)을 통해서 接近하는 이런바 計劃經濟의 方法을 不可避하게 挾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朝鮮·中共·日本의 경우는 이러한 方法에 依해 2段階를 克服한 代表的인 例가 될 것이다.^{註6)} 이 段階에 있어서 無視할 수 없는 것은 大衆의 政治的 權力이 박탈당하고 勞動組合을 專斷上 禁止하므로써 大衆의 犧牲에 依한 工業化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韓國의 경우는 1·2段階가 重複된 形態로 發展을 指向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統一의 前提下에서 部分的인 統合 秩序確立을 目標로 하고 있으며 同時에 經濟開發計劃을 통한 3段階 突入을 目標로 하고 있는 것이다.

2. 政治發展과 統一

政治發展과 統一의 問題는 相互 密接한 關聯性을 지니고 있다. 南北韓이 統一을 成就하는 데 있어 相互의 体制의 正統性을 否認하려는 基本立場이 存続하는 限 雙方은 現實世界狀況에서 不得已하게 推進하지 않을 수 없는 南北對話와 그리고 交流 接觸을 他方体制를 自己 体制로 吸收·分解시키는 手段으로 利用할 것이 分明하다. 註7) 따라서 적어도 南北對話의 發展은 雙方의 体制守護의 基本的 前提下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고, 어느 一方이 他方보다 對話에 적극적이라 함은 一方의 体制가 相對적으로 強할 경우 - 勿論 偽裝 行爲로 나올 수도 있지만 - 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南北交流戰略을 樹立하는 데 있어 政治發展의 問題는 政治發展이 南北間의 對話過程에서 体制守護問題를 能動的으로 解消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點에서 必須的 考慮要件이 된다.

窮極적으로 南北의 統一의 意味는 南北이 完全한 하나의 体制로 單一化되는 時期까지를 包含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어도 領土的 統一이 統一의 意味를 代身한다는 思考를 排除한다면 韓半島의 統一은 政治的 領土的 社會文化的 領域에서의 統合이 完成되는 段階까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註8) 이것은 古典的인 統一의 概念을 政治發展의 初期段階로서 把握했던 데 비해 南北韓間의 統一의 問題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政治社會로 單一化되는 것이므로 統一을 爲한 過程에서 對內的인 政治發展의 問題가 提起될 것이다.

統一에 對한 時觀觀念 (time orientation)을 생각해 볼 때 統一의 時點은 Organski가 指摘한 3.4 段階 卽, 福祉政治 및 豊요의 政治段階와 一致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統一의 時點을 韓半島 全体가 福祉社會나 豊饒의 社會를 이루는 時期와 一致시키므로서 政治發展과 統一의 問題를 同一한 次元에서 考慮해야 함을 意味한다. 따라서 交流戰略構圖에서 對內的인 政治發展의 問題에 對한 projection은 交流戰略 樹立의 重要한 指標가 될 수 있다고 본다.

第2節 南北韓 關係의 背景

1. 機能主義 理論

機能主義는 國家相互間에 機能的 分野의 協力을 通해 世界를 또는 어느 地域을 하나의 새로운 社會로 結合시켜 共同社會로 發展시킬 수 있다는 것을 基本論理로 하고 있다.

D. Mitrany 教授는 機能主義에 關한 研究에서 根本적으로 다음 몇가지의 假說에 基礎를 두고 있다. 註 9)

첫째 人間은 合理的인 存在 (Human beings are rational.) 라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점진적인 向上과 發展이 可能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根本적으로 人類는 鬪爭과 對立보다는 調和와 和平 (harmony over conflict)을 더 希求한다. 셋째로 人類社會에서 의 戰爭의 根本 原因은 社會的인 또는 經濟的인 問題에서 起因된다고 믿고 따라서 國際平和의 捷徑은 貧困을 一掃하고 文盲과 疾病을 征服 (the conquest of poverty, ignorance and disease)

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機能主義 學說을 最初로 體系化한 學者는 前記한 D.Mitrany 教授이다. 註10) 그는 1943 年에 出版한 著書 “A Working Peace System” 에는 近代國家의 特性을 說明하고 現今의 國際社會는 大多數의 國家가 必로 政治的인 完全獨立을 主張하고 있기는 하나 事實 各國間의 交流는 日盆增加하고 있고, 國民相互間의 接觸은 더욱 活潑해 져서 相互依存度가 急激히 上昇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와 同時에 現代 民主社會의 市民들은 福祉社會 建設을 그들의 至上目標로 삼고 있어 爲政者들은 이 莫重한 課題를 담당하기 爲해 國際間의 協力을 더욱 助長하게 된다고 해석한다.

機能主義論者의 立場은 各 國家가 解決해야할 社會福祉問題는 各 國家가 共同으로 協力하는 가운데 그 解決이 促進될 것이며 目標 達成이 容易하다는 信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國家單位의 個個 領土의 畵두리를 벗어나 超國家的 境地에서 論하는 것이 가장 效率的이라고 믿는다.

機能主義者들은 國家間에 協力할 수 있는 課題를 政治的인 것과 非政治的인 것, 즉 政治的인 것과, 技術的·機能的인 것으로 區別한다. 그 理由는 後者가 前者보다 國家間의 協력이 더 容易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는 까닭이다. 이와같이 福祉課題를 함께 協力해서 해 나갈때 그 過程에서 習得한 知識은 國際社會의 共同利益을 爲해 自然히 한 專業分野에서 다른 分野로 옮겨 移轉될 수 있다고 믿는다. 뿐만아니라 더욱 重要한 事實은 그때 發生하는 協同心은 國家에 對한 忠誠心과 경합하게 되어 결국 國際的인

協力体制에 對한 忠誠心의 可能性마저 있게 된다고 한다. 註11)

D. Mitrany 以後에도 世界各地에서 機能主義에 依하여 統合運動을 說明해 보려고 힘써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代表的인 業績을 낸 學者는 E. B. Haas 教授로서 그는 1964 年에 "Beyond the Nation-State : Functionalis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이란 著書를 發表하였다. 註12) 그리하여 Haas 教授를 中心으로 한 Havard 大學의 Joseph S. Nye 註13) 나 Wisconsin 大學의 Leon N. Lindberg 및 Chicago 大學의 Phillip C. Schmitter 등은 Mitrany 의 理論에 다시 政治的인 效果를 加味해서 新機能主義學派를 形成하게 되었다. 그들은 Mitrany 教授의 學說에다 좀 더 具體的인 變수의 性格을 檢討하고 그 運動의 政治的 統合에의 意義를 分明히 하여 다음과 같은 네가지 點을 指摘하였다.

첫째 가장 重要한 理論的 貢獻은 傳播機能 (spill over capacity)에 對한 理論이다. Haas 教授는 ITU와 ILO를 比較 考察하면서 國家間에 協力할 수 있는 機能中에서도 ITU와 같이 너무 그 義務自体가 技術的인 경우 그것은 擴張하고 成長하는 能力을 欠如한다는 것이다. 註14) ITU의 歷史는 1百年을 헤아리나 ILO는 그 半밖에 되지 않는데도 그의 義務는 훨씬 廣範圍하게 擴大되어 國際統合에 貢獻한 바 至大하다고 評價했다. 이것은 오직 그 機能의 傳播能力 즉 連鎖反應效果의 結果라고 말하고 있다.

둘째로 그들은 Mitrany 教授가 專門家나 技術者는 다른 政治人이나 外交官 또는 軍人들과 달라서 훨씬 自由롭게 協力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事實은 그들도 性格上 유연성이 적은 者들이라고 했

다. 따라서 오히려 專門知識을 所有한 者로서 政治人이나 外交官이 된 者가 더욱 適格이라고 主張한다.

셋째는 忠誠心이 새로운 求心點을 찾게 된다고 한것에 對해 條件을 붙여 市民이나 社會一般에서 國際機構가 自己나라에 對해 무슨일을 하고있다는 事實이 認識되어야만 그 國際協力機構에 對해서 國民의 關心이 集中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오직 開放社會에서 만 可能할 것이라고 指摘했다. 따라서 共產主義 社會와 같은 閉鎖된 社會에서는 自由化의 물결이 일고 나서 비로소 國民들의 關心이 國境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Haas 教授는 協同할 課業이 簡單하게 明示될 수는 것이 어야 한다는 것이다. 國家間에 協력이 이루어 질려면 課題가 明確해야 한다. 즉 人道的인 事業이라든가 또는 非政治的인 社會·文化事業 또는 經濟的인 交流 및 協助中 어느 領域이라는 것을 正確하게 指摘할 수 있어서 爲政者들의 同意와 後援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註 15)

2. 機能主義的 接近과 統一

機能主義와 統一의 問題는 統一을 위한 初步的 接近으로서 南北交流를 念頭에 둔다면 보다 쉽게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機能的 接近이 비록 開放社會間의 統合일 경우에만 그것의 論理的 妥當性이 立証된다고는 하나 南北韓이 서로 體制는 다르지만 同一民族으로서 歷史的·經驗的 共同意識이 存在하고 있다는 點에서 機能主義的 接近의 可能性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註 16)

機能主義가 南北統合의 接近方法으로 問題가 되는 것은 機能主義 自体가 接觸에 關한 理論이 아니고, 또 同時에 雙方體制를 機能의 으로 同時에 調和시키는 論理라는 點이다. 따라서 前記했다 싹히 南北間의 交流나 接觸의 問題가 機能主義的 接近의 領域밖에서의 새로운 韓半島的 接觸·交流論理로 展開될 수 있다고 가정하므로서 그리고 南北의 住民이 社會體制의 差異에도 不拘하고 單一民族으로서의 歷史的 共感과 領土的 環境을 갖고 있으므로서 韓半島統一을 爲한 機能主義的 接近方法의 障害가 除去될 수 있을 것이다.

機能主義에서 말하는 融合過程이란 地域的 國際機構가 創設된 後 各 會員國間에 일어나는 統合過程上의 變化를 말한다. 例를들면, 韓半島에서 南北赤十字會談이 成功되어 雙方 赤十字社에서 離散家族을 爲해 直接 事務를 開始하는 時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機能主義的 統一接近은 南北間의 接觸과 對話를 통해 이것이 協力の 段階에 이르고 나서, 그리고 協力을 爲한 機構가 設置되고 나서 서서히 統合으로 나가는 나가는 段階에서 適用되는 理論이다.

여하튼 統一을 南北社會가 完全히 統合되는 最後段階로 그 時點을 設定한다면 對北交流戰略 構想設定에 있어 交流의 試行段階를 벗어나면서 부터 곧 韓半島統一을 爲한 機能主義的 接近의 妥當性이 實証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南北接觸·交流를 爲한 戰略樹立이 基本的으로 機能主義的 要素를 前提로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 分明해진다.

南北 雙方이 일단 接觸이 始作되면 相互間의 機能的 融合이 어떻게 發展하게 될 것인가 가 問題다. 여기에는 學者에 따라 약

간석의 見解가 다르나 그中에서도 Havard의 Joseph Nye 教授가 말한 7가지의 要素를 보면 다음과 같다. 註17)

① 必須的 連関作業

이것은 械能主義의 原理論的인 要素로서 共同課業이 갖는 傳播機能을 말하고 特定 分野의 共同課業은 必須的 連関作業으로 波及되는 것을 말한다.

② 交流의 增大

이것은 統一 指向的인 交流가 增大되므로서 그것을 담당하던 機構가 擴張되고 業務量이 增大되는 現象을 말한다. 勿論 단순한 交流의 增大는 統一否定的인 要素를 전혀 베제시킬 수 없는 것이다.

③ 計劃的 連関作業

이것은 計劃的으로 特定分野의 業務를 구태어 連関이 없음에도 連関된 것이라 하여 處理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交流가 이루어지는 過程에서 政治的 目的意識이나 計劃的인 術策으로 使用될 수 있는 要素이다. 南北間의 接觸·交流가 本格化될 때 이런 種類의 交流가 試圖될 可能性이 농후하다.

④ 指導階層의 親睦

接觸이 開始되면 爲政者들이나 高位當局者들은 그 接觸을 直接 經驗하고 會談에도 參與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接觸으로 生기는 親睦을 말한다.

⑤ 統合社會團體와 抬頭

南北接觸의 경우를 想定할 때 公式的인 南北의 交流가 認定되면 民間團體나 심지어는 公共團體까지도 相對方과 交流를 通하여 統合함으로써 그들의 權益을 保護하려 할 것이다. 이와같은 民間團體間에도 淸濁 現狀이 나타나게 되며 統合을 위한 壓力團體로 抬頭하게 된다. 이들 團體는 中央統合機構에도 영향을 주게되며 同時에 當事國의 行政府에도 強力한 影響력을 發揮하게 된다. 그러나 統合團體의 構成이 再統合을 爲하여 반드시 肯定的인 것만은 아니다. 어느것이나 마찬가지로 肯定的이기도 하고 否定的이기도 하나 이것을 誘導하는 統制過程에서 보다 効果的으로 調整할 수 있어야 한다.

⑥ 統合理念의 鼓舞

이것은 統合이 民族的 긍지를 鼓舞시켜 줄 수 있다거나, 統一된 韓國이 民族的 威嚴을 과시해 준다는 點에서 統合過程의 終局에 가서 云謂될 性質의 것이다.

⑦ 外的要因에 의한 作用

이것은 統合이 第3者에게 주는 影響의 問題이며 統合이 外部로 認識할 程度로 表面化 되면서 부터 나타난다. 이것은 統合의 主体가 世界的 均衡에 寄與하는 것일 경우에는 오히려 統合促進의 契機가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強制的인 힘이 發効될 余地로 있는 것이다.

第3節 國際的 背景

南北交流戰略 構圖를 爲한 韓半島外的 條件 - 國際的 背景 - 은 體制集中 또는 體制 收斂을 主張하는 收斂論 (convergence theory) 的 立場과 現 國際情勢를 集約할 수 있는 平和共存論 (peaceful coexistence) 으로 要約해 볼 수 있다.

1. 收斂說

收斂論의 基本立場은 첫째로 工業化와 都市化는 體制差異없이 現代社會에 共通된 文化基盤은 造成한다는 것과, 둘째로 體制間的 接觸속에서 交流가 實施되면 社會制度는 優秀體制쪽으로 集中된다는 것이다. 註) 이것은 高度의 工業化와 都市化로 因해 技術과 管理層은 脫 ideology化 하고 따라서 合理化와 能率化를 爲한 閉鎖體制的 開放化가 不可避하게 될 뿐더러, 工業化는 豊요를 創造하므로서 敎條主義的 世界觀을 變化시키게 됨을 말한다.

民主主義와 共產主義가 서로 接近하여 收斂의 狀態가 可能하다는 것은 주로 經濟學者, 社會學者 敎育學者 그리고 政治學者들에 의해서 擧論되었다. 이 用語의 發說者라고 할 수 있는 美國의 經濟學者 Walter S. Buckingham 은 1958年 그의 著書 Theoretical Economic System 에서 收斂說의 論旨를 펴고 있다. 이보다 훨씬 前에도 이러한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00에 이미 仏國西의 歷史家요 政治家인 Alexis de Tocqueville 은 美國과 蘇聯의 接近을 主張했다. 最近에 이르러 Tinbergen, Aron, Sorokin 같은

学者들과 Brzezinski, Huntington 등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註 19)

收斂說의 立場에 서는 이러한 学者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개 經濟的인 側面에서 大衆消費社會가 實現되며 나아가서 福祉國家가 이룩되고 또 되어야 한다고 믿는 데서 出發한다. 即, 理念이 다른 두 社會는 하나의 同形인 産業社會로 向해서 接近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産業社會는 大衆이 理念의 問題에 깊이 関与치 아니하고 非 ideology 化하는 社會이며, 經營者의 權利가 消費者의 權利보다 尊重되고, technocrats 가 支配하는 社會를 뜻한다. 이 밖에도 보다 훌륭한 體制를 民主主義도 共產主義도 아니라는 前提下에 보다 좋은 體制를 形成해야 한다고 한다. 註 20)

科學·技術의 革命的 進展을 믿는 이러한 立場은 marx가 주장하는 이른바 社會形態의 變化가 必然的인 對立法則에 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各各 相異한 要素는 서로 補完하는 關係에서 接近의 偏向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堅持에서 收斂說을 주장하는 諸論者들은 資本主義나 共產主義가 人間의 참다운 삶을 保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人類歷史의 終末을 避하기 爲하여 두 理念은 接近하여 하나의 統合社會(integral society)를 이룩해야 할 것이며 또 그러리라 믿는다.

그리하여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人間의 참다운 創造的인 삶을 保障해 주는 理想社會가 建設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理想社會는 곧 生活樣式에 있어서는 資本主義에 따르고 整然한 秩序를 確立하기 爲해서는 共產主義에 依存하는 절충식의 統合社會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反面에 共產主義者 역시 世界가 收斂할 것을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收斂은 共產主義形의 政府形態를 不可避하게 取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反面에 西歐人들은 收斂說의 擴散의 結果는 미·소가 收斂하는 未來의 어느 時期에 民主的 體制가 보다 基本的인 形態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註 21) 다시말하면 西歐人들과 共產主義者들은 收斂說의 基本立場이 自己體制로의 統合으로 歸結할 것이라는 假定들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Lipset 도 指摘했듯이 社會의 變動에 따라 理念의 問題가 새진해 진다는 것은 결코 "ideology의 終末"을 告한다는 것과는 다른 問題이다. 思考方式이나 社會決定 要因들이 變化하면 이것이 理念의 差異를 해소시켜줄 것이라고 믿기는 쉬운 일이 아니며, 또한 經濟要因이라는 環境的 要因이 理念의 問題를 풀 수 있는 현재한 要因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問題가 남게된다. "經濟라는 物質과 理念이라는 精神의 差異는 물과 기름의 關係인지도 모를 일이다." 라고 하는 懷疑가 收斂論을 極端적으로 옹호할 名分을 褪色케 하는 것은 事實이다. 註 22)

이러한 收斂說의 立場은 南北交流戰略構圖를 設定하는 데 있어 몇가지의 可能性을 시사한다. 첫째로 國際社會의 收斂論的 發展은 韓半島統一의 葛藤·障害要因이 되는 理念의 問題에 解決의 실마리를 줄 수 있다. 勿論 南北韓 交流 自体가 波及하는 機能的인 役割이 理念의 問題를 民族의 次元속에 潛在化 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南北의 理念差異가 韓半島 外的인 狀況에 그 比重이 더 크게 置重하고 있으니 만큼 收斂論的인 立場은 보다 그

意義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둘째로는 收斂論的 接近方法은 直接的으로 韓半島 自体의 理念의 障害除去에 도움이 될 수 있다. 即 南北은 共히 近代化 産業化를 目標로한 經濟發展에 努力하고 있으니 만큼, 北韓内部에 이러한 近代化 産業化를 위한 新 technocrats 들이 理念의 次元보다 機能的인 性格으로 대두할 可能性이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工業化, 産業化를 共히 追求하는 南北은 機能的 分野에서 協助의 領域이 存在할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收斂論的 接近이 機能的인 接近과 더불어 韓半島的 狀況에서 理念의 障害를 克服할 수 있는 論理的 根拠를 提示한다고 할 수 있다.

2. 平和共存論

적어도 2次大戰이 終熄되기 以前까지는 國際政治의 原理는 戰爭과 平和의 兩論理에서 展開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核이 가공할만한 戰爭武器로 등장한 1950年代 以後부터는 既存의 戰爭의 意味가 變質되었다. 即 戰爭이 平和를 구가키 위한 手段으로서 理解되어 왔던(비록 強者が 主張하는 一方的 合理化 이긴 했지만) 생각이 核의 등장으로 戰爭은 더 以上の 平和回復 또는 維持의 手段으로서 意味를 喪失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註 23)

이러한 戰爭에 關한 觀念의 變化가 보다 表面化되기까지는 核 戰爭 突發直前의 危險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註 24) 따라서 戰爭의 觀念의 變化는 不可避한 새로운 戰爭도 平和도 아닌 中立的인 概

念을 國際社會에 印태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立場에서 平和共存」을 부르짖는 것은 1956 第20次 世界 共産黨大會에서의 「호르시초프」 소련 首相에 依해서 였다. 이것은 戰爭의 可避論의 立場에서 國際共産主義의 勝利를 合理化시키는 政治的인 色彩가 強하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以上の 戰爭은 그들의 理念을 전파키 위한 鬭爭手段이 될 수 없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70年代 國際情勢는 美·蘇의 兩極體制를 탈피하고 多極化된 構造 내지 體制로 一新하고 있다. 美-中共의 接近과 日-中共의 接近, 分斷國의 現狀凍結등 一聯의 事態는 새로운 多極化 共存體制 即, 勢力均衡의 論理가 大量戰爭의 概念을 否定하는 背景에서 成長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註25)

이러한 平和共存의 論理는 적어도 韓半島의 統一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影響을 기친다. 첫째로 平和共存이 分斷國 또는 緊張地域의 緊張解消를 要求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平和共存의 論理가 2次大戰以後의 紛爭地域 即, 冷戰의 초점이된 地域을 解氷시키려는 努力으로 表現되는 것을 말한다. 둘째로는 이러한 平和共存의 論理는 이때까지의 東西勢力均衡을 파괴시키지 않고 既存의 勢力圈을 그대로 存続시키려는 方向性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分斷國을 現狀凍結시키는 努力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平和共存의 性格은 韓半島 統一을 위하여 國際情勢를 重要한 變數로 考慮를 하게한다. 다시말하면 韓半島의 統一은 國際的인 要請을 소의시켜놓은채로 이루어 지리라는 것은 期待키 어렵다. 따

라서 交流戰略構圖設定에 있어서 다음 두가지의 事項이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韓半島의 統一을 成就하기 爲해서는 國際情勢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는 能力을 必要로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이러한 國際情勢를 能動的으로 主導 利用하여 韓半島 統一目標을 促進시키는 方向에서 戰略이 樹立될 수 있어야 한다는 點이 될 것이다.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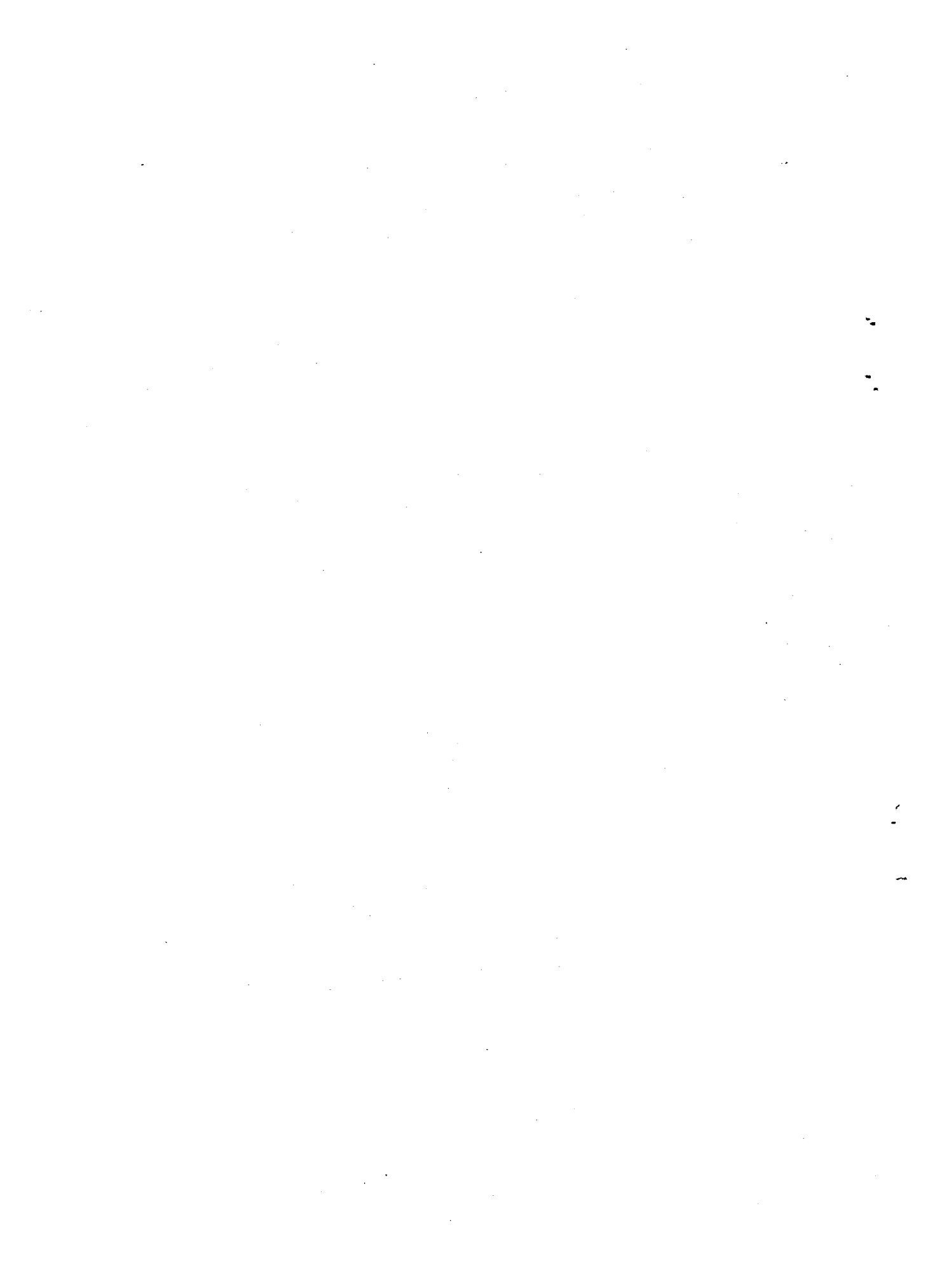
- 註 1) Lucian W. Pye, Aspect of Political Development, Boston, Little Brown & Co., 1966, pp. 33 ~ 45.
- 註 2) A.F.K. Organski, The Stages of Political Development, N.Y., Alfred A. Knopf 1967, p.7
- 註 3) 上掲書, pp.1~17
- 註 4) 上掲書, p.212
- 註 5) 上掲書, pp.10~15.
- 註 6) Organski 는 産業化의 類型을
- ① Stalinist 型
 - ② Bourgeois 型
 - ③ Pacist 型으로 分類하고 있다. 上掲書, pp.
- 註 7) 国土統一院, 北韓의 統一政策과 對南戰略, 1972, pp.29-32. 参照
- 註 8) 具本泰, 南北接觸을 爲한 理論의 定立, 서울大學校行政大學院 學位論文, 1973, pp.18-19. 「統一의 概念」参照.
- 註 9) 이것은 Mitraný 教授가 指摘한 假說이 아니라 이것을 分析 評價 해보는 立場에서 나타난 것이다. 우재승 機能主義理論과 兩北再結合(統一政策資料×), 国土統一院, 1972, pp.4~5.
- 註 10) D.Mitraný, A Working Peace System, 4th ed., Chicago, Quadrangle, 1966.
- 註 11) 우재승, 前掲書, p.4
- 註 12) E.B. Haas, Beyond the Nation-State: Functionalis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Stanford Univ. Press, 1964.

- 註 13) J. S. Nye, Peace in Parts: Integration and Conflict in Regional Organization, Boston, Little Brown, 1971.
- 註 14) 이것은 南北交流의 項目으로 純粹한 學術分野 보다 體育分野의 交流가 波及度가 크다는 것을 說明할수 있는 根拠가 된다.
- 註 15) 우재승, 前揭書, pp. 6~7.
- 註 16) 南北間의 接觸理論에 關해서는 具本泰, 前揭論文, pp. 23-27 參照
- 註 17) 여기에 關해서는 우재승, 前揭書, pp. 23~27 參照.
- 註 18) 國土統一院, 南北對話發展策, 1972, P. 13 및 Brzezinski and Huntington, Political Power: USA/USSR, N.Y., Viking press, pp. 419-436. 參照.
- 註 19) 收斂說에 對한 學者들의 主張에 對해서는 金光雄, 趙錫俊, 南北協商要員의 養成 方案研究, 國土統一院, 1973, pp. 12~17. 參照
- 註 20) 上揭書 p. 16
- 註 21) Brzezinski & Huntington, 前揭書 p. 419
- 註 22) 金光雄, 趙錫俊, 前揭書 p. 15
- 註 23) 核의 均衡에 關한 것으로는 Thomas C. Schelling, The Strategy of Conflict, London, Oxford Univ. press, 1968, pp. 257~266
- 註 24) 이것은 Cuba Crisis 를 實例로 들수 있다.

註 25) 平和共存論을 共產主義의 새로운 鬭爭概念속에 包含시켜 說明하는 見解가 있다. 朴奉植, 金容九, 政府의 三段階 統一接近推進方案, 国土統一院, 1972, pp.19-33.

第3章 對北交流戰略의 目標 및 基本方針



第3章 对北交流戰略目標 및 基本方針

第1節 統一政策推進上的 問題點과 交流戰略의 目標

1. 國際共存秩序와 韓半島의 自主的 統一秩序間的 調和問題

現今에 와서 韓半島의 統一問題는 몇가지의 基本的인 問題點을 갖고 있다. 그중 共存秩序와 統一秩序와의 調和問題는 韓半島의 外的狀況과 韓半島內的狀況間的 마찰에서 生기는 問題이다.

이것은 國際情勢 自体가 平和共存的 秩序確立에 没入하고 있고 따라서 既存의 世界的 狀況을 現狀態에서 凍結시키려는 基本的인 趨勢로 말미암아 이것이 韓半島의 自主的인 統一努力에 브레이크를 건다는 點에서 注目된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問題에 심각하게 봉착하고 있는 獨逸의 경우 그 현저한 事例를 볼 수 있다. 即, 獨逸의 경우에 自主的 統一이 實現되는 경우 이것이 歐羅巴의 勢力均衡을 破壞할 뿐 아니라 統一된 獨逸이 歐羅巴의 危險要素로 등장할 것이라는 諸國의 우려가 獨逸의 統一을 根本적으로 否定하는 立場을 말한다.^{註1)} 韓半島의 경우 獨逸의 경우와 比較할 때 몇가지의 差異點과 類似點을 發見할 수 있다.

우선 獨逸과 韓半島가 根本적으로 同一한 立場으로 分析하는 見解를 볼 수 있다.^{註2)} 이러한 同一論의 主張은 韓半島의 경우에도 獨逸과 마찬가지로 統一政府形態에 對한 周邊強大國의 一美,

中共, 蘇一合意가 不可能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理由로는 南北의 双方 權力體制나 經濟體制의 統合이 不可할 것이고 또 統一政府의 形態가 強大國 어느 一方의 排他獨點的인 友邦體制로 바뀌는 것을 相互가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同一論을 主張하는 또 다른 論旨로는 獨逸과 韓國에 對한 強大國의 利害對立의 強度比較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獨逸의 경우 유엔 憲章 107條에 依해 明示的인 強大國 分斷政策을 追求하고 있는 反面에 韓半島의 경우는 72年의 美.中, 美.蘇 共同聲明 등으로 보아 暗黙間에 強大國의 分斷政策이 追求되고 있다는 點으로 보아 獨逸과 韓半島가 本質的으로 強國政治의 規範內에서 統一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同一論의 主張에 對하여 獨逸의 경우보다 韓半島의 경우가 統一을 수행하는 過程에서 훨씬 國際的인 制約을 받으 것이라는 主張을 하는 見解가 있다.^{註 3)}

이러한 主張을 펴는 論者들이 들고 있는 根拠로서는 다음 몇가지에 準하고 있다. 그 하나는 文書上의 比較이다. 即 東.西獨의 경우는 이미 平和共存을 條約化하므로서 分斷을 文書化하고 主權的인 二 國家의 同等한 權利를 認定한 반면에 南北韓의 경우는 分斷에 關한 어떻한 文書上의 規定도 없다는 點이다. 이것은 韓半島의 경우 統一概念을 계속 維持하며 接觸強化를 통한 協力形態를 追求할 余地를 남겨준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民族分斷의 經驗面에서도 韓半島의 경우가 보다 有利하

다는 것이다. 獨逸의 경우는 수차의 民族分斷의 經驗이 있어 왔지만 韓半島의 경우는 民族的인 單一感情이 支配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統一의 外的 與件에서 獨逸의 경우보다 韓國의 경우 確實히 有利하다는 判斷이다. 即 獨逸의 경우는 獨逸의 統一이 歐羅巴 安定的 直接的인 危脅要素가 되는 反面에 韓半島의 경우는 아시아 勢力均衡의 緩衝地域이라는 點이다.

獨逸의 事例가 앞으로 南北關係를 發展시키기 爲한 先例가 될 수 있다는 點을 否認하지 않을 경우 獨逸과 韓半島의 比較는 意義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問題視되는 것은 獨逸과 韓半島가 與件이 同一하거나 또는 韓半島가 比較優位에 있거나 間에 韓半島의 統一은 적어도 南北이 共히—비록 共產化 統一, 自由化 統一의 差異가 있지만 —韓民族自主的인 統一秩序를 形成하려는 데 反하여 國際情勢는 그 自体가 韓半島 統一을 從屬變數로서 處理하려는 立場에 있으므로서 國際的인 共存政策과 統一政策을 調和시키는 方向에서 戰略模索이 必須的인 課題로 提起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統一政策이 對UN政策 내지 對外以策 전반에 걸쳐서 밀접히 連繫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所以가 있으며 對北交流戰略 構圖에서 對外的인 戰略을 併行시켜야 한다는 論理的인 準拠를 갖게 되는 것이다.

2. 南北間의 自主統一努力에서의 相衝

南北間의 統一努力의 相衝現狀은

- ① 南北間의 政治文化面에서의 相衝과
- ② 統一接近方式과 그 理論의 相衝
- ③ 南北의 統一觀의 相衝의 3가지에서 把握해 볼 수 있다.

가. 南北間의 政治文化面에서의 相衝

解放後 南北韓은 分断된 채, 北韓은 全体主義 共產主義體制를 南韓은 自由民主主義體制를 各各의 政治體制로 構築해 왔다.

따라서 南北韓은 政治的 象徴과 概念이나 政治文化, 政治體制, 社會生活의 規範과 習貫등에 있어서 현격한 差異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가령 韓國이 歷史와 傳統을 존중하고 客觀化하고 있는데 對하여 北韓에서는 歷史와 傳統을 왜곡하고 있으며 用語 및 號稱만 하더라도 그 差異는 현저하다.註 4)

南北間의 政治文化面에서의 差異는 지난 4半世紀 동안의 相異한 政治理念과 支配體制에 依하여 極端的으로 硬直化 내지 固着化 되어 버렸다. 따라서 雙方體制의 政治에 對한 價值와 信念體系 및 感情的 態度는 全혀 相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政治文化面의 相衝은 政治文化가 個人 및 集團의 政治行態에 또 政治體系의 作用方式에 큰 影響을 준다는 前提下에서 볼 때 南北間의 對話 또는 諸般 平和的 統一努力에 各己의 體制守護의 問題를 必然的으로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側面은 南北間의 交流가 이루어 질 경우도 역시 必然的으로 考慮되어야 할 要素이며, 따라서

双方体制가 各己 自己의 体制를 保存 또는 守護하려하는 한 南北間의 統一努力은 政治文化的 要素를 無視한 策로 이루어 지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얻게된다.

南北間의 政治文化的 異質性은 곧 南北間의 体制差異로 表現될 수 있다. 따라서 各 体制가 自己体制를 維持하려는 根本的인 慾望을 拋棄하지 않는 한 南北間의 交流는 政治文化에 影響을 미치는 程度가 強한 경우일수록 實現하기 어렵다는 論理가 선다.

이것은 곧 相互의 価値, 믿음, 感情的 態度에 影響을 주지 않거나 最少限 相互의 影響을 甘受할 수 있는 程度에서 交流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나. 統一接近方式과 그 理論에서의 相衝

이미 言及한 대로 南北韓은 統一目標에 있어 相馳되듯이 그 接近方法에 있어서도 顯격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韓國의 경우 궁극적 統一目標을 單一自由民主政体樹立에 두므로서 그 接近方法에서나 理論面에서 "쉬운 問題부터 段階的 接近"의 原則에 立脚하고 있으며 北韓의 경우는 궁극적 共產化統一政府形態를 目標로 하므로서 "政治 軍事面의 優先" 原則에 基盤을 두고 있다. 具體적으로 接近方法에서 보면 南北韓에 介在하는 理念과 体制의 差異를 認定하고 体制 및 概念差異를 解消하고, 兩体制의 異質性을 同質化하고, 相互理解와 信賴의 氛囂氣 造成을 위하여 段階的인 接近 즉 人道的→非政治的→政治的 接近方式을 取하려는 것이 韓國側의 立場인 反面에 北韓의 경우는 南北을 갈라놓은 本質

的 差異를 不問하고 南北間의 直線的이고 全般的인 解決을 同時에 追求하려는 直接協商 態度로 나오고 있으며 過度的으로는 聯邦制 實施, 平和協定 締結, 軍備縮少등을 提昌하고 있다.

한편 統一接近 理論面에 있어서는 韓國側은 民主的 基本秩序를 바탕으로 하는 伸縮性 있는 方法을 研究하여 提示하고 있는 데 反하여 北韓側에서는 아직도 래년의 平和共存理論이나 모택동의 人民革命理論을 단념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어도 正統的인 民族觀念에 依한 統一政策에 關하여 正式으로 北韓당국의 政策으로서 決定된 증거가 보이고 있지 않다.

이와같은 統一에의 接近方式과 理論面에서의 差異는 對話를 통한 合議形式이나 一旦 合議된 것의 實効性 自体에도 南北間에는 立場의 差異가 予想되는 것이다.

即, 韓國側은 南北對話를 通하여 될 수 있는 限 實踐性있는 合議—具體的 合議—를 追求하고 同時에 漸進的인 交流形式을 取하므로써 實効性에 執着하는 反面에 北韓은 原則的, 多意的 合意를 追求하므로써 最少限 合意事項에 對한 解析權은 獨點하겠다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點이다.

이러한 南北間의 相馳現狀은 既存의 南北對話를 停滯狀態로 이끌게 하는 主된 原因이 되고있다. 이러한 狀況은 南北間에 game 理論의 適用 可能性마저 던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南北이 Conflict game의 狀況에 處해 진 것으로 評價할 수 있으므로서 이것을 協助關係 即 player間的 Cooperated game으로 構造를 轉換케 하거나, 또는 代價카-드를 주므로써 對話 自体의 進展을

誘發할 수 있도록 戰略을 開發해야 할 必要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註 5)

game 理論의 立場을 取할 경우 南北關係 發展의 가장 核心的 變數가 되는 것은 國際情勢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南과 北의 두 player를 相馳되는 諸般狀況에서 벌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南北은 共히 하나로 뭉쳐진 國際政治 秩序를 拒否할 수 없다는 前提에서 볼 때 國際的 要請에 부응키 위하여 南北間의 對話를 不可避한 條件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論理的 歸結을 얻게 되므로서 적어도 對外的인 面에서 協助 game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註 6)

이와 反面에 代價카-드를 주므로써 主導的 位置에서 戰略을 遂行하기 爲해서는 면밀한 狀況分析과 戰略要素間의 連繫效果를 把握할 必要가 있다. 即 이것은 多분히 協商戰略的인 要素를 包含하는 것으로서 附隨效果에 보다 注目하여야 할 必要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東西間의 協商經驗을 土臺로 한 對共協商戰術開發의 必要性이 提起되는 것으로서 크게는 共產側의 協商戰術手, 그들의 戰略目標, 國共合作戰術등에 執着한 攻擊, 防禦戰略이 同時에 併行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註 7)

다. 南北韓의 統一觀의 相衝

統一에 對한 南北의 見解는 적어도 南北對話 以前까지만 해도 我邦体制의 肯定과 他方体制의 否定에서 根源하는 絶對的인 統一觀에 立脚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 方法이 征服에 依해서거나

平和的인 方法에 依해서거나 全히 相對方을 否認하는 觀念으로서
지난 4半世紀 동안 南北韓에 絶對視되어 왔던 統一原則이기도 하
다.

그러나 南北對話가 始作되고난 以後에는 이러한 統一視에 部分的
인 變化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従
來의 征服概念이 現存 國際政治的 与件에서나 双方의 武力準備狀態
의 衡平에 依해서나 더 이상 南北을 統一하기 爲해서 適當치 않
다는데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70年代의 南北韓은
그것이 名目的이건 實際的이건 間에 平和的 方法을 追求하게 되었
고 이것은 적어도 既存의 絶對的 統一觀을 部分的으로 緩和케 된
것이다.

統一觀은 具體的으로는 統一以後의 韓半島의 政治形態를 包含해서
적어도 南北이 統一을 念願하는 價值 또는 그 價值에 對한 強한
말음으로 表現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南北間의 다른 現實的
인 相衝要因에 比하여 理想的인 價值를 말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理想的 價值는 그것이 實現될 수 있는 統一政府
의 形態와도 密接히 關聯되어 진다. 따라서 南北韓間에 가로 놓
인 相互의 不信感, 異質程度에 따라서도 그리고 統一을 爲한 努力
等に 따라서도 可變的으로 處理될 수도 있는 性質의 것이다.

다만 分명한 것은 南北의 어느 一方도 統一獨立된 韓半島가 韓
民族에게 利益을 가져다 주리라는 기대에 있어서는 共感하고 있
다는 点이다. 그러므로서 統一戰略을 樹立하려는 構圖上에서는 적
어도 이 같은 共感領域을 擴大하고 民族的 單一 ideology를 形

成할 수 있는 理念的 基楚確立이 併行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 分明해 진다고 할 수 있다.

3. 國論統一上의 問題

以上에서 指摘된 問題點은 적어도 統一政策이 國際的側面, 對北 韓關係面에서 提起된 것이다. 統一을 爲한 이러한 問題點 以外에 提起되는 다른 한側面은 對內的인 統一國論에 關한 것이다.

이것은 統一에 對한 國民의 關心과 統一을 主導하는 政府間에 生기는 期待와 實踐의 gap의 問題와 政府의 統一政策을 效果的으로 뒷받침하는 國論의 組織化의 問題이다.

統一에 關한 國民의 期待는 적어도 統一政策遂行過程에서 나타나 는 結果가 가장 重要한 것으로서 이것은 政府政策에 對한 國民의 理解度, 北韓에 對한 國民들의 北盲症, 國際情勢에 對한 國民들의 情勢觀으로 大別할 수 있다.

적어도 統一政策을 遂行하는 政府의 立場에서 볼 때 이러한 國民의 期待는 體制守護의 問題와 直結된다. 이것은 政治的 正統性 確保를 爲한 政府와 國民의 一體感造成이라는 問題와 國民에 對한 統一의 비론 提示가 政策的으로 配慮되어야 할 것임은 勿論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近代國家로서 國民的 資質을 確保하지 못한 우리 의 경우로서 一律적으로 이러한 問題가 解決되기를 期待키는 困難하다. 따라서 보다 体系的이고 組織的인 國民統一弘報 내지 知識人의 訓練을 必要로 하며, 統一國論善導를 爲한 中間層의 形成이

시급한 課題가 될 것이다.^{註 8)}

이러한 統一政策에 對한 國論上의 問題點은 前記한 國際的 側面이나 南北關係面에서 發生하는 問題點 以上の 重要性을 지닌다.

그러나 本論文에서는 이러한 對內的인 問題點의 重要性만을 指摘하고 이것이 戰略構圖上에서 어떻게 處理되어야 할 것인가에 關해서는 交流戰略의 段階別 戰略展開過程에서 部分部分 言及해 나갈 것이다.

第 2 節 交流戰略의 基本方針

1. 民族的 側面

南北間의 交流戰略은 적어도 南北을 民族과 埋念의 -民族 2 理念- 相互矛盾되는 兩概念間의 二重構造에서 把握할 경우 肯定的인 民族이라는 同質性의 次元에서 否定的인 埋念의 差異를 解消시켜 나가는 努力으로 볼 수 있다.^{註 9)}

民族的 次元이라 함은 흔히 南北關係를 「同一分斷民族」間의 關係로 把握할 때의 民族史의 一體感이 強調되는 側面을 말한다.

이것은 보다 具體的으로는 南北이 「韓民族」으로서 느끼는 歷史的, 傳統的 單一體感을 말 하며 民族이라는 概念을 同一한 言語, 齊一한 慣習, 傳統을 가지고, 그리고 血統이나 地緣關係가 있는 歷史的 「文化共同体」로 把握할 수 있는 限 南北은 韓民族으로서 文化, 歷史傳統에서 同質性을 갖고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基本的 立場에서 우리의 對北交流戰略은 이러한 民族的 次元을 如何히 發展시킬 수 있느냐에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른 側面을 排除시킨 後 우선 民族的 次元에서 基本的으로 考慮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루는 것으로 集約해 볼 수 있다.

우선 첫째로 問題되는 것은 南北이 單一民族이라는 데 相互의 明示的인 合意를 誘導하여 적어도 北韓社會의 住民들이 民族統一을 爲하여 南北이 努力하고 있다는 基本的인 生覺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民族的 次元에서 統一의 當爲性을 認識시키며 同時에 既存의 敵對觀念으로서 民族의 同族相殘의 結果를 招來함이 없이 平和的인 方法에 依한 統一努力이라는 點에서 共感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立場은 적어도 南北對話以前의 絶對的 統一觀念—我邦體制의 肯定과 他方體制의 否定에 基盤한—에서 脱避해야 한다는 것은 勿論이며 同時에 이러한 脱避의 方向이 統一指向의이어야 할 것이라는 點이다.

둘째로는 南北間에서 民族에 對한 一次的인 理解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으로는 古典的인 民族國家의 概念을 暫定的으로 修正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一民族 一國家의 民族國家 概念이 現實 韓半島의 狀況에서 一時的으로 後退함을 말 한다. 卽 統一에 對한 絶對的인 觀念에서 적어도 韓半島의 現存 立場을 考慮하는 方向으로의 轉換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平和的인 統一接近方法을 爲해서는 不可避한 措置로서 받아들여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段階에서는 一民族 一國家觀이 一民族 二秩序 내

지 1民族 2國家觀으로의 修正이 不可避하다. 勿論 이러한 民族 國家觀의 修正背景은 現實主義(realism)에 보다 執着한 것으로서 國際的인 平和共存秩序와도 關聯되어지며 또한 交流를 前提로 한 發展임은 말할 것도 없다.

세째로는 民族的인 次元에서 韓半島의 共同生活圈을 形成하고 民族으로서의 單一體感, 結束感, 共同運命體感을 造成하는 問題이다.

이것은 南北의 交流가 적어도 非政治的 分野에서 完全히 成熟한 段階에서 惹起되는 것으로 理念的으로는 民族이 ideology— 即 共產, 自由—의 上位에서 位置할 時期이다. 따라서 韓半島 全体에서 새로운 民族國家를 形成하는 段階가 될 것임은 勿論 적어도 體制 構造面으로는 1民族 1國家 2政府가 韓半島의 現實로서 存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네째로는 이와같은 民族의 理念이 支配하는 韓半島內에서 政治的 統合에 對한 民族的 合意를 形成, 民族的 再結合을 成就해야 한다는 點이다. 이러한 段階에는 1民族 1國家 1政府가 韓半島의 體制的 構造가 되며 同時에 民族 共榮圈이 完全히 形成되는 경우이다.

以上の 네가지의 民族的 側面의 發展은 交流가 圓滑하게 實現될 수 있는 前提下에서 可能하다. 이것은 對北交流를 通해 南北의 理念差異에도 不拘하고 民族的 次元에서 南北關係를 昇華시키려는 基本立場에서 可能한 것이다. 따라서 變測的인 民族國家의 概念使用이 可能하고 北韓을 政權으로 認定할 수 가 있는 所以가 있는 것이다.

2. 制度的 側面

制度的 側面은 南北間의 交流가 民族的 側面의 調和를 模索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比하여 이러한 調和를 政治的인 次元에서 補完하는 側面에서 意義가 있다. 이것은 적어도 지난 4半世紀 동안 高질화 되어온 南北間의 理念의 差異를 어떻게 制度的으로 交流 目標에 비추어 修正, 發展시킬 것인가에 그 目的이 있다.^{註 10)}

同時에 制度的인 問題는 南北의 政治的인 自由, 共產의 理念差異가 가져온 南北의 政治的 價值觀의 修正과 併行될 수 있어야 함은 勿論이다. 이것을 이미 言及한 民族的 側面의 發展方針에 立脚해서 다음과 같이 展開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南北間의 交流가 試圖되기 爲해서는 政治的 次元에서 南北의 分斷의 現實性을 認定하고 國際的인 現狀固着化 傾向을 追求해야 한다는 點이다. 이것은 70年代 初半期の 南北對話가 더 以上 停滯되고 있음을 볼 때 보다 明白해 진다. 따라서 적어도 南北을 对内, 對外的인 競争을 現實化할 수 있어야 하고 民族的 側面에서 言及한 대로 北韓을 共產統治實體로서 認定하는 措置를 해야 한다는 귀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南北間에 制度的으로 共存關係를 確立시킬 수 있는 措置가 必要하다. 이것은 交流戰略을 보다 具體化 시킬 수 있고 또 發展시킬 수 있는 條件을 마련한다는 前提와 國際的 趨勢를 能動的으로 対処해 간다는 假定下에서 可能하다. 따라서 南北의 現狀의 暫定的 固着化의 必要에 따라 平和關係를 設定한다는 것을

考慮해 볼 수 있고 이것은 基本條約의 締結 및 同 關係의 具體的 發展—交流戰略 遂行을 爲한—의 模索이 併行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로는 民族的 次元에 併行하여 南北間의 政治的 國家聯合 形態에로의 發展을 考慮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北韓이 主張하는 聯邦制의 形態와는 無關하게 우리의 對內, 對外的인 力量의 確保와 交流의 成熟段階에서 基本的으로 可能性을 考慮하는 것이다.

네째로는 國家聯合 形態에서 聯邦國家形態로 移行하여 單一政治社會를 構築하는 것을 생각 할 수 있다.

이상의 諸 假定은 단순히 制度的 側面에서만 局限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制度的인 南北關係의 發展은 交流를 통한 現存秩序의 變更過程을 事後 調整하거나 또는 事前誘導키 爲한 것으로서 意義가 있는 것이다. 勿論 이러한 制度的 發展은 國際的인 現實主義的인 進展과도 密接히 聯關된다. 다만 이러한 制度的 發展은 그것이 결코 獨自的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點과 따라서 南北의 諸般交流의 類型別 進展을 爲한 大 前提로서 假定해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同時에 이러한 發展은 進行過程의 면밀한 審査分析을 통한 自由民主統一韓國을 建設할 수 있는 方向에서만 考慮될 性質의 것이기도 하다.

3. 戰術的 側面

以上の 民族的, 制度的 側面에서의 發展方向은 모두 戰術的인 方針에 歸結된다.

南北交流戰略의 戰術的 側面에서 보면

첫째로 民族的 當爲性을 認定하고 現實的인 共產實體로서 北韓을 認定하는 段階에서는 南北의 經濟, 社會, 文化分野의 交流를 試圖할 수 있다는 假定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결코 北韓의 政治的 正統性이나 北韓의 政治的 價値를 認定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南北이 國際的인 競争을 現實化시키고 또 韓半島內에서의 南北體制競争의 現實性을 誘導키 爲한 것이다.

이 段階에서는 次期の 交流의 發展이 約束되거나 또는 北韓이 不得已하게 이러한 發展을 受諾할 수 밖에 없도록 狀況을 展開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民族的 側面에서 1民族 2國家의 概念을 暫定的으로 認定하고 政治的으로는 北韓을 部分秩序로 認定하는 段階에서 交流의 維持, 擴大를 통한 分斷狀態를 改善하고 促進시키는 경우이다.^{註 11)}

여기서는 적어도 南北의 交流를 具體적으로 發展시키거나 또는 그것을 政治的 基本關係設定 過程에 明示하여 北韓으로 하여금 強奪的 交流擴大에 부응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民族的 理念이 支配하고 政治的 次元에서의 聯邦主義에 適切한 形態를 導入하여 體制的 協力을 模索하는 것과 併行하여 南北間에 多方面的인 廣範한 交流가 實現되고 이것으로 因한 北韓

社會의 自由化 變質促求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경우를 想定할
경우의 우리의 戰術이다. 이 때는 적어도 南北交流가
機能化, 專担化되는 段階로서 機能的 統合이 部分的으로 實現될
것을 假定하고 있다.

네째로는 交流의 最終段階로서 우리의 上着人口比例에 依한 自由
總選舉가 우리의 戰術目標가 된다. 이것은 北韓의 自由化變質 完了
了段階 내지 또는 궁극적인 韓半島 内部的인 諸般秩序가 機能的인
統合이 이루어진 경우를 想定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交流戰略의 戰術的인 目標는 對北交流의 諸類型에
서 考慮되어야 할 것이며 對外的, 對內的, 對北韓面에서 具體的인
세부戰術驅使를 必要로 하게 된다.

交流戰略 構圖를 設定하려는 理由는 이것이 韓半島의 궁극적 民
主化統一目標를 達成키 爲한 部分別 交流類型을 開發키 爲한데 있
다. 따라서 以上の 諸 基本方針은 部分別 交流가 그 實効性이
立証될 수 있다는 明確한 自信위에서만 意味가 있는 것이다. 따
라서 앞으로 展開코져 하는 交流戰略 構圖의 段階設定 및 具體的
戰略展開 方向 역시 이러한 基本的 假定에 立脚한 것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註]

- 註 1) 尹炳益, . 西獨의 東方政策, 国土統一院, 1972, PP.
- 註 2) 同一論을 主張하는 代表的인 學者로는 서울大의 朴奉植教授와 東京大의 「에프. 신기찌」教授를 들 수 있다. 東亞日報社 安保統一問題 調查研究所, 70年代의 南北韓關係, 1973. 및 서울신문, 「70年代의 南北關係對談」, 1973. 1.5日字 參照.
- 註 3) 이 見解를 主張하는 學者로는 成均館大의 尹謹植教授가 代表的이다. 上揭 東亞日報社刊 70年代의 南北關係 參照.
- 註 4) 가장 쉽게 들 수 있는것이 言語의 異質化다. 이것에 關해서는 国土統一院, 国土統一, 通卷 才 23~29号 (1972年 5月~11月) 및 国土統一院, 南北政治力量比較, 1972, P. 53. 參照
- 註 5) Conflict game 및 cooperated game에 關해서는 T.C. Schelling, Strategy of Conflict, London, Oxford Univ. press, 1968. 參照
- 註 6) 이러한 立場이 곧 南北間의 對話의 焦點을 對外活動에서의 共同步調 또는 UN同時加入등에 맞추게 되는 所以이다. 国土統一院, 對外活動共同步調方案, 1973. 參照
- 註 7) 共產側의 協商態度에 關해서는 Fred C. Ikle著, 李榮一, 李亨來譯, 協商의 戰略, (How Nations Negotiate.)

韓一文庫， 1972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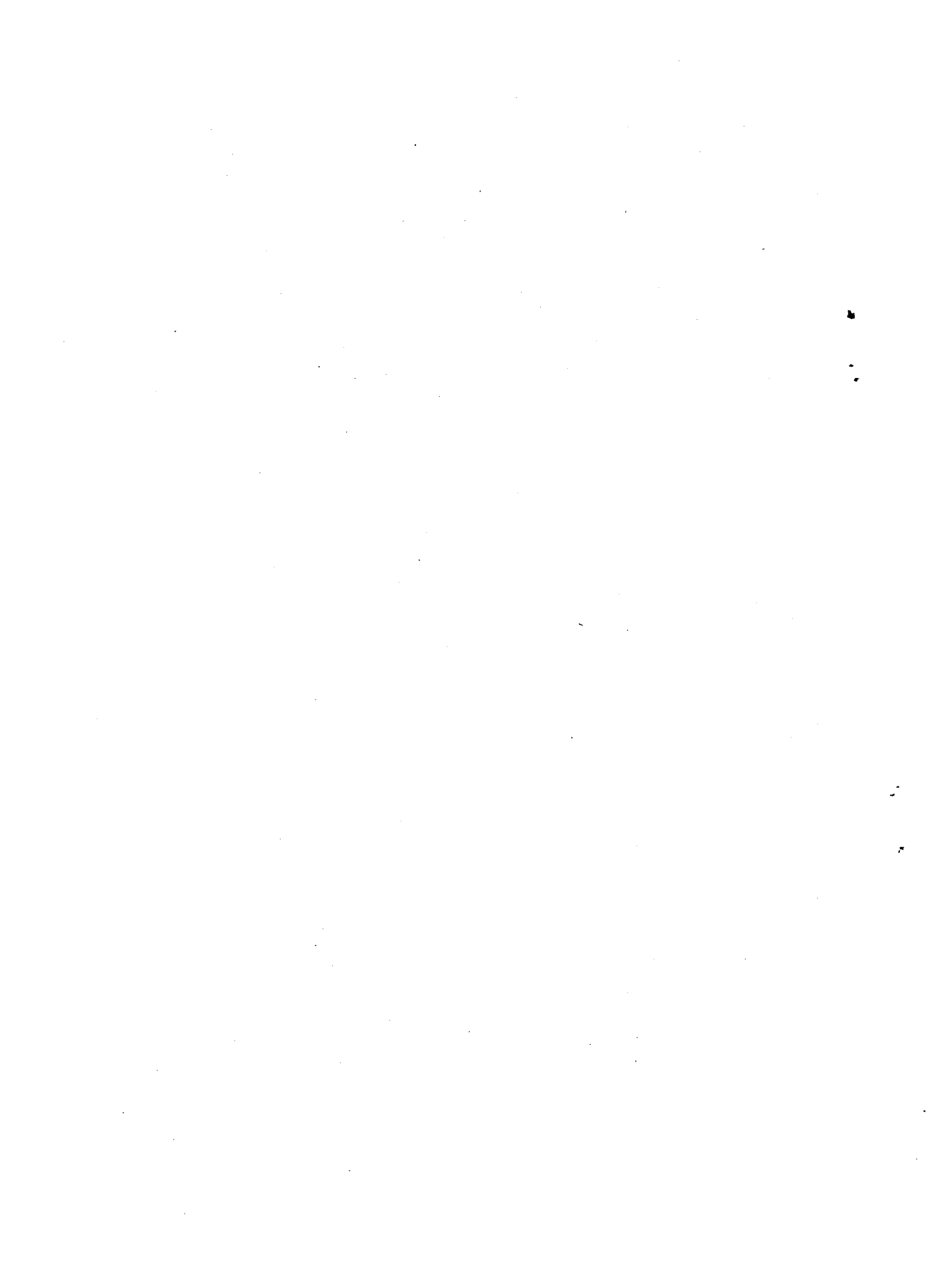
註 8) 統一國論善導를 爲한 中間階層形成에 關해서는， 國土統一院，
國論統一을 爲한 中間層形成方案， 1972. 參照。

註 9) 具本泰， 「南北關係의 二重構造와 同質性」， 南北接觸을 爲
한 理論의 定立，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學位論文， 1972.
PP. 35~38.

註 10) 南北間의 政治的 側面에서의 葛藤問題는 上揭論文 PP.30-31
및 PP.38-44 參照。

註 11) 部分秩序의 概念에 關해서는 上揭論文 P.19 參照。

第 4 章 段階別 交流戰略 構圖



第 4 章 段階別 交流戰略構圖

第 1 節 南北交流戰略의 段階設定

第 3 章에서는 南北交流戰略의 目標 및 基本 方針을 說明하였다. 本章에서는 이러한 目標 및 方針을 基準으로 해서 이것을 具體的으로 展開시키기 爲한 段階設定과 各 段階別 展開方向을 論述코져 한다.

統一目標達成을 爲한 段階別 目標은 적어도 다음 세가지 側面에서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卽 對外的 側面, 對內的 側面, 對外關係面이 그 것이다. 이것은 어느 特定한 제도 위에서 一律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키는 힘들다. 적어도 各 側面마다 獨自의인 進行秩序가 있을 것이고 同時에 相互間에 調和가 破壞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統一目標를 爲한 全般的인 諸條件을 일일이 考慮할 수 없으므로 戰略展開의 便宜나 또는 대충적인 主要關聯要素들의 集中程度를 考慮하여 段階를 区分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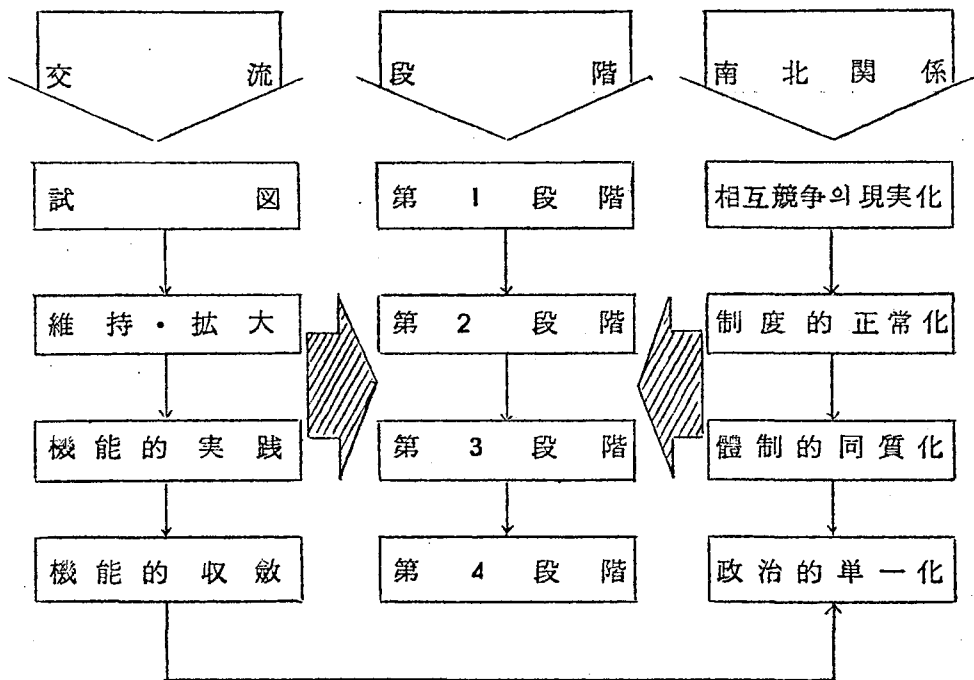
本 論文에서는 主로 交流의 發展過程과 또 이러한 交流의 發展과 併行豫想되는 南北關係의 發展狀況을 中心으로 段階를 分類하고자 한다. 우선 交流의 發展過程은

- ① 交流가 試圖되는 段階,
- ② 交流가 維持·擴大되는 段階
- ③ 그리고 交流가 南北에서 機能化·專担化되어 實踐되는 段階,
- ④ 交流를 통한 機能的 統合이 이루어지는 4 段階의 過程을 通하

여 이루어 질 것으로 보며 그리고 이러한 交流의 發展에 따른 南北關係의 狀況變化는

- ① 南北間의 競爭이 現實化 하는 段階.
- ② 南北關係가 制度的으로 正常化하는 段階.
- ③ 南北의 體制가 同質化하는 段階.
- ④ 南北이 政治的으로 單一化되는 段階의 4段階로 發展할 것 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南北交流戰略 構圖의 段階와 交流의 發展過程, 南北關係의 狀況變化와의 關係는 다음과 같은 圖示에 서 보다 明白해 질 수 있다.

※ 南北交流戰略의 段階設定



以上과 같이 南北交流의 4段階 發展過程의 세부적인 段階別 戰略 展開方向은 다음 章에서 論述할 것이다.

第 2 節 段階別 交流戰略의 展開方向

1. 南北關係의 競爭的 現實化 : 第 1 段階

가. 對北關係

第 1 段階의 對北關係의 基本目標은 接觸交流를 試圖키 爲한 南北間의 對話窓口 마련과 原初的인 接觸機構를 設置하고 이를 彈力的으로 運營하는데 있다. 그러기 爲해서는 南北間의 基本關係面과 交流戰略面에서 다음과 같은 細部的인 戰略驅使가 必要하다.

基本關係面에서는 첫째로 이제까지의 對北基本姿勢에서 伸縮性을 보여 最少限 北韓을 對話의 對象으로 認定하는 것이다. 이것은 南北對話가 開始되는 基本的 要件임은 말할 必要가 없다. 더우기 지난 70年代初盤의 南北赤十字 會談, 7.4 南北共同聲明, 南北調節委員會의 會談等에서 이미 이루어 지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對話窓口의 마련은 비록 既存의 北韓의 괴뢰적 地位에서 脫離을 意味하지만 적어도 南北의 平和的인 交流實踐을 爲한 段階로서 意義가 더욱 크다. 그리고 基本關係面에서 考慮되어야할 또하나의 要素는 非政治的分野의 交流에 對한 南北間의 協定 또는 約定을 締結하는 問題이다. 이것은 처음의 對話對象 認定에서 한걸음 進展된 것으로서 北韓의 政治的 實體를 認定하는 데 까지 發展하는 것

을 意味한다. 여기서 北韓의 政治實體 認定은 非政治分野 交流에 對한 約定・協定에 對한 代價카-드로서 그 程度를 限定한다는 것은 留意할 必要가 있다.

이러한 基本關係面の 發展은 交流戰略面에서 다음의 具體的 戰術을 可能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南北對話에 必要한 連絡事務所 및 直通電話를 加設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赤十字 會談이나 調節委 會談에서 이루어진 事項이므로 보다 具體的인 方案은 說明을 略한다.

둘째는 南北交流에 關한 協議機構를 設置하는 問題이다. 이것은 上記의 交流에 關한 協定締結의 問題에 앞선 것으로서 調節委 5個分科委內의 經濟分科의 構成, 社會, 文化分科의 構成에 關한 것이다. 이러한 調節委內의 協議機構設置 問題는 南北間에 격심한 意見差異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南北調節委 5個分科委 同時構成을 代價카-드로 하되 經濟, 社會, 文化分野의 우선적 解決을 條件으로 妥結 努力한다.

셋째로는 北韓이 主張하는 政治, 軍事問題에 對해 우리의 防禦的 立場에서 非武裝地帶의 平和的 利用方案을 提議하는 問題이다. 이는 北韓의 軍縮提議等を 效率的으로 저지 시킬 수 있는 軍事的 緊張緩和方案이라는 點에서 그 意義를 評價할 수 있을 것이다.

나. 對外關係

第1段階의 對北交流面에서의 問題點은 그것이 對外的인 關係를 통해 調整될 수도 있는 性質의 것이다. 이것은 南北間的 諸

般問題가 國際的 狀況을 無視한채 解決될 餘지가 없기 때문에 對外的인 戰術을 效果的으로 展開하므로써 對北關係 進展에 有利한 高地를 얻는 同時에 北韓을 우려의 對北戰略目標로 誘導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적어도 1段階의 狀況에서 展開되어야 할 對外戰略目標는

- ① 安保態勢를 實質的으로 強化하기 爲한 對外的 努力과
- ② 共產圈 및 中立諸國과의 接觸 및 修交를 摸索하고
- ③ 北韓과의 國際的 外交舞臺에서 競爭을 現實化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다 具體的으로 展開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對UN關係面에서의 努力이 그 하나이다. 이것은 北韓을 UN內로 이끌어 들이므로써 上記의 外交的 競爭現實化의 目標을 達成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기 爲해서 南北UN同時加入 및 同時招請을 實現시키도록 努力함과 同時에 UN內에 北韓의 底意를 陽性化시키므로써 北韓이 上記提議를 拒否할 경우 그들을 國際的으로 孤立시키는 努力이 必要한 것이다. 이것은 同時에 UNCURK 및 UNC 解體를 우리側이 先制的으로 讓步하는 代身 韓國安保를 爲한 UN의 介入을 促求하는 方向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로 美國 및 友邦國에 對한 戰略이다. 이것은 西方國家의 北韓承認에 對備하기 爲한 것으로써 共產國家들의 韓國承認을 爲해 영향력을 구사케 하므로써 國際的인 現狀認定 趨勢에 均衡을 維持할 수 있음과 同時에 共存政策과 統一政策을 調和시키는 基盤을 튼튼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고 또 韓·美間의 相互防衛

條約을 再調整토록 努力하므로서 UN軍撤収에서 오는 韓半島의 勢力真空을 美軍의 상징적 駐屯保障으로서 解消시킬 수 있으며, 日本에 對해서 從來의 經濟關係를 지속키 爲한 努力으로 經濟·社會分野에서 可能的 많은 約定 또는 協定을 締結하므로서 經濟的인 戰爭저지력을 確保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로는 對共產圈에 關한 戰略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소련에 對하여는 政經分離原則을 適用하여 積極的인 門戶開放 政策을 驅使하고 友好的인 態度를 表明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中共에 對해서는 韓國이 友好的 態度를 表明하고, 대륙봉問題, 영해問題, 어업問題해결에 협조態度를 表明하는 것이다. 이 밖에 其他 東歐圈과의 交易試圖 問題도 同時에 追求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對外的인 戰略이 同時에 展開될 경우 南北交流의 試圖는 累積的인 效果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 政府가 行한 73年 6. 3平和 統一外交宣言은 이러한 意味에서 그 意義가 더욱 強調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對內 關係

以上の 對北·對外戰略의 驅使를 爲해서는 強力한 對內的인 基盤確立이 必要하다. 그러기 爲해서 對內的인 戰略目標은 国力培養의 加速化와 国力의 組織化가 實現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總力安保態勢를 強化를 併行시키므로서 더욱 그 基盤을 強化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對內的인 目標을 達成키 爲해서는 統一問題, 軍事問題, 經濟

問題, 社会問題 全般에 걸친 努力이 必要한 것이다. 우선 統一問題에 關해서는 國民에 對한 새로운 統一의 「비전」의 確立과 統一에 關한 國論을 統合하므로서 現實的인 統一論을 國論化시켜야 할 것이다.

同時에 이러한 統一論의 國論化는 分散된 社会團體를 糾合하는 社会的 統一協議體를 構成하므로서 可能한 것이다.

軍事問題에 關해서는 防衛産業을 育成하고 軍裝備를 現代化하며 軍將兵들에게 特殊 政訓教育을 實施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적어도 北韓의 對南姿勢面에서 항상 武力南侵의 可能性을 排除시킬 수 없음을 考慮할 때 더욱 明白해 진다.

經濟問題에 關해서는 近代國家에 對의 指向키 위한 重化學 工業을 育成시켜야만 하고 또 都市가 農村의 均衡的 發展을 爲한 計劃的이고 效果的인 均衡配分政策이 實施되어야 할 것이며 同時에 韓國 經濟의 對北優位力量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註 1)

社会問題에 있어서는 韓國內部の 社会不均衡에서 오는 矛盾을 效果的으로 제거시킬 수 있는 社会政策의 樹立과 그 實踐을 通하여 北韓의 韓國內부에 人民革命勢力을 부식시킬 수 있는 素地를 없애 버려야 할 것이다.

以上の 對北, 對外, 對內的인 諸般戰略이 效果的으로 遂行될 경우 우리의 對北交流戰略은 큰 問題없이 進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現在의 우리政府가 追求하고 있는 政策方向을 이러한 諸側面에서 해석할 경우 보다 그 實踐的 妥當性を 提高시킬 것이다. 다만 이

러한 目標設定이 現實的 基盤없이 論理的으로만 處理된 것이 아쉽
긴 하지만 적어도 1段階의 戰略이 正常的으로 展開될 수 있을
경우 2段階로의 接近이 보다 容易함은 말할 必要가 없다.

2. 南北關係의 制度的 正常化 : 第2段階

가. 對北關係

第2段階에서 對北關係의 基本目標은 韓半島의 平和를 制度的
으로 定着시키고 또 漸進的으로 接觸·交流를 維持·擴大키 爲한
것이다. 이러한 目標達成을 爲한 具體的인 戰略의 展開方向은 다
음의 두가지 側面에서 說明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南北間의 基本關係를 設定하는 것을 考慮할 수 있다.

이것은 北韓을 韓半島의 部分秩序로 認定하는 것으로서 2段階의
가장 核心的인 要素가 된다.

同 基本關係設定에서 內容으로 處理되어야 할 重要事項을 나열하
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될 것이다.

① 우선 統一指向的인 意志를 強力히 明示하는 것이다. 이것
이 두個國家로 韓半島를 永久分斷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國際其存秩序의 推移에 적응하면서 南北의 關係를 制度的으로 正常
化시키므로써 統一을 爲한 部分秩序로서 北韓의 地位를 認定하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이것은 統一拋棄印象을 扞拭할 수 있는
表現이어야 할 것이다.

② 相互의 內政不干涉規定을 明示한다. 이것은 南北間의 交流에

있어提起되는 體制守護의 問題를 制度的으로 處理키 爲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交流戰略의 妥當性을 北韓政權에게 說得시킬 수 있는 明分이 되며 同時에 北韓의 對南人民戰略의 지지를 法規範으로서 明示한다는데 意義가 있을 것이다.

③ 相互不可侵原則을 明示한다. 이 경우는 北韓의 不法的인 侵攻의 여지를 制度的인 面에서 닥아보자는 것으로 評價할 수 있다. 同時에 大規模 戰爭이 아닌 部分的인 게릴라 戰까지도 저지시킬 수 있는 名分이 된다. 勿論 이 段階에서는 보다 效果的인 對內·외의 安保戰略이 驅使되겠지만 적어도 法規上에 이러한 明示的 表現은 對外的인 北韓의 侵略行爲의 可能性에 制動을 거는 役割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民族的 衿持宣揚을 爲한 對外活動 共同步調規定을 明示한다. 이것은 南北間의 懸격한 意見差異로 부터 벗어나 적어도 對外的 諸般活動에 있어 共同步調를 明示하므로써 우리의 交流戰略 遂行의 法的인 根拠가 될 수 있다.

⑤ 相互 經濟·社會·文化交流의 推進 및 擴大를 明示한다. 이것은 1段階에서 이루어진 非政治的 分野의 協定이나 約定을 發展시킨 것으로써 우리의 交流戰略의 1次的인 目標이다. 따라서 이러한 規定이 앞으로의 多方面的인 交流를 우리의 主導的 立場에서 展開시켜 나갈 수 있게 할 것이며 보다 具體的인 部分的 交流에서의 合意形成을 爲한 基礎가 될 수 있다.

⑥ 南北共同事業 推進을 明示한다. 이것은 交流의 諸 技法中

에 共同事業分野가 그 機能的 波及效果가 가장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非武裝地帶 共同開發 또는 南北共同漁撈 등의 協力分野에서의 交流促進을 期할 수 있는 것이다.

⑦ 끝으로 資保事項의 明示와 이것은 이러한 基本關係 設定으로 北韓이 既存의 韓國이 가진 唯一合法性을 配分하려는 기도를 분쇄키 爲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北韓의 國家不承認의 우리의 立場이 明白히 表現될 수 있는 것일 수록 우리에게 有利하다는 것은 分明하다.

둘째로는 이같은 南北關係設定의 具體的内容을 發展시키는 問題이다. 이것은

- ① 交流를 통한 機能的 擴散效果를 追求하는 것과
- ② 多元的 社會價值를 北韓에 注入시키는 것과
- ③ 北韓의 對南人民革命戰略의 포기를 誘導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戰略展開方向은 다음의 對外關係, 對北關係에서 보다 補強될 것이다.

나. 對 外 關 係

第2段階의 對外的 目標은 南北間의 基本關係 設定(그중 " 對外活動 共同步調 ")에 基盤한 對外的인 南北間의 共同協力活動을 追求하는 것과 또하나는 共產圈 및 中立題國과의 交流를 擴大하기 爲한 것이다. 이러한 目標을 達成키 爲한 具體的인 戰略展開方向은 다음 몇 가지로 集約해 볼 수 있다.

첫째로 北韓과의 對外共同協力活動을 追求하기 爲하여서 社會文化

分野, 經濟分野, 政治, 軍事分野로 大別하여 各 分野를 다음과 같이 区分하여 協力活動을 展開하는 것이다. 即,

① 海外共同 漁撈前進基地의 設置, 等과 같은 共同事業面

② 单独加入 國際機構에서 相互 敵對的 活動 中止 및 共同利益 追求 등의 國際機構面

③ 韓國經濟人 등의 共產圈 訪問時. 또는 北韓人들의 自由陣營 訪問時 雙方의 在外公館의 協助 等 相互의 對外活動에서의 協力を 도모하는 것이다. 註2)

둘째로는 對共產圈 交流擴大를 爲해서는 共產圈과의 交易을 통한 接觸深化, 經濟的實利 및 對北韓 견제 效果를 追求하는 것 등을 考慮할 수 있다.

이러한 對外關係에서의 共同協力 및 共產圈 交流擴大는 對內的으로 이루어질 對北 交流를 보다 促進시킬 수 있는 余地가 크다.

다. 對 內 關 係

第2 段階에서의 對內關係에서 追求해야할 戰略的 要素로는 全般的인 對, 內外的인 南北 交流에 對備한 態勢 確立일 것이다.

이러한 目標은 이미 第1 段階에서의 對內戰略을 累積적으로 發展시키는 것은 勿論 對北 自信感을 國民들에게 注入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具體적으로 統一問題, 軍事問題, 經濟問題, 社會問題, 法規問題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說明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統一問題에 있어서는 國民總和를 통한 政治的 正統性의 維持와 國民의 對北 自信感을 確保하는 方向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軍事問題에 대해서는 첫째로 自衛的인 安保態勢의 持續的 強化를 爲한 軍裝備를 現代化하고, 南北關係에서 發生 가능한 諸般 軍事의 問題를 實質的으로 對處할 수 있는 軍事力量을 配養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武器體制面이나 人力面이나 圧倒的인 對北優位를 點할 경우 우리의 對北戰略 遂行이 보다 效果的으로 進展될 수 있다는 基本的 論理에는 變함이 없음을 말한다.

다음으로 經濟問題에 있어서는 産業問題의 均衡的 發展을 통한 經濟의 安定的 成長을 持續하는 일이다. 註 3)

社會問題에 있어서는 實質的인 社會保障制度의 確立과 최저賃金制度 및 勤勞條件을 改善하는 方向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法規問題에 있어서는 南北交流에 對處한 關係法令의 發展的 修正이 併行되어야 할 것이다.

3. 南北關係의 體制的 同質化 : 第 3 段階

가. 對 北 關 係

第 3 段階의 對北戰略의 基本目標은 南北間에 廣範한 交流의 實現을 통한 民族同化效果를 啓發하는 것이다. 이 段階에서는 交流가 機能化되고 專担化되어 所謂 機能主義論者들이 主張하는 대로 協力の 領域이 政府의 干涉에서 벗어나 機能的, 自發的으로 이루어 지는 段階를 말한다.

이 段階에서는

① 北韓의 産業社會化 傾向의 深化로 南北韓에 共히 産業社會가 갖는 共通協力 領域이 擴大될 것을 前提하고

② 南北韓의 政治的 領域에서의 相互 共存體制가 制度化되므로서 交流의 獨身的인 進行方向을 妨害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가지 前提가 必要하다.

이 目標을 達成키 위한 具體的인 戰略展開方向은 다음 몇가지 범주로 区分하여 展開할 수 있다. 우선 交流의 問題에서는 交流의 形態가 中間媒介機構를 中心으로 機能化, 專担化되므로 적어도 이러한 課業에 參與하는 成員들의 協同心 및 共同精神을 確立되는 段階이다 政治問題에 있어서는 이러한 南北韓의 全般的인 交流擴大에서 유발되는 國民的 哲學의 結晶을 새로운 民族主義 單一이데오로기로서 補強하는 作業이 必要하다. 이것은 經濟理念을 最少限으로 極少化시키므로서 民族的 單一 理念이 全韓半島에서의 唯一理念으로 浮刻시키는 問題이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南北間은 國家聯合主義에 依한 單一政體摸索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經濟問題에 있어서는 單一經濟共同體形成을 推進키 爲한 平和産業의 摸索, 産業의 特化, 共同生産으로 生産規模의 擴大 등의 一貫的인 政策이 推進될 수 있어야 한다.

軍事問題에 있어서는 南北間의 平和協定을 締結하는 問題이다.

우리 의 交流戰略의 全體構圖에서 보면 第3段階에는 이미 北韓의 體制가 全般的으로 開放化하기 始作하고 있음을 前提로 政治·軍事問題에 있어 統一時期에 對備한 體制로 轉換하는 것이 目標이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政治的 國家聯合體制의 形成과 併行하여 平和協定을 締結하므로써 南北間의 存在해온 軍事的 緊張要素를 完全히 除去하는 方向에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平和協定의 締結上의 重要事項으로서 는 첫째로 相互均衡 減軍을 實施하는 것과 그리고 減軍을 確認키 爲한 軍事監視團을 構成하는 것과, 둘째로 外國으로 부터의 一切의 武器搬入을 禁止하는 것, 셋째로 모든 外國軍의 韓半島에서 撤収 등이 問題視될 것으로 豫測할 수 있다. 결국 平和協定締結은 南北間의 모든 軍事的 대치 상황을 궁극적으로 終熄시키는 方向에서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는 點이다.

나. 對 外 關 係

第3段階의 對外關係와 基本戰略 目標은 前記한 對北關係의 目標을 推進시키는 方向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 段階의 對外戰略 目標은 國際社會에서 南北韓의 広範한 協力關係를 維持하고 韓半島 統合秩序의 持續的 發展을 爲한 國際的 保障을 追求하는 것이다. 이러한 目標達成을 爲한 具體的 戰略展開方向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韓半島 주변의 強大國과의 關係設定 問題이다. 이것은 一種의 保障條約이나 平和條約의 形式으로서 韓民族의 統一國家形成을 爲한 주변강대국들間的 基本的 合意를 形成하는 것이다.

이것은 對內的인 國家聯合의 實施나 平和協定 締結에 對한 事前조치로서 이루어 질 수 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強大國 保障條約의

내용상에 韓半島의 自主的 秩序에 對한 強大國들이 兪정好意中立을 지킬 것과, 韓半島의 統一進展狀況을 互惠的 立場에서 促進시키는 努力에 關한 合意를 하는 등의 일이 主가 될 것이다.

둘째로 國際社會와의 關係에서는 兪엔을 비롯한 各種 國際機構 및 國際社會에서 韓半島의 民族 國家觀을 形成시킬 수 있도록 諸般活動을 展開하고 對外活動, 對內活動으로서 共同事業部分을 積極的으로 開發해야할 것이다.

다. 對內 關係

交流戰略 構圖 全般에서 우리의 궁극적 目標達成의 時點은 3段階에서 부터 始作된다. 따라서 對北戰略, 對外戰略은 基本的으로 對內的 強力한 國民的 背景을 가진 경우에 보다 效率的으로 遂行될 수 있는 것이다.

第3段階의 對內戰略目標은 南北間의 體制的 同質化를 爲한 國民的 基盤을 形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優先順位面으로 보아 對北戰略이나 對外戰略을 遂行하기 以前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3段階戰略이 實, 하기의 全般的인 前段階의 累積的인 背景이 前提되지 않고는 생각하기 힘든 것임은 分明히 豫測할 수 있다.

3段階는 Organski가 指摘한 대로 적어도 韓國政治가 第3段階 即 福祉의 政治段階에 있는 것을 想定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3段階의 對內戰略의 展開方向은 다음의 4가지 범주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로 統一의 비존問題이다. 이 段階에서는 成熟된 國民의 背景에서 새로운 創造的 民族主義觀에 立脚한 新民族主義觀을 具現하는 것이다. 이러한 新民族主義觀은

- ① 民族共榮主義
- ② 民族本位主義
- ③ 民族主權主義
- ④ 國際平和主義等を 內容으로 想定할 수 있다.

둘째로는 軍事問題이다. 이 段階는 南北間에서는 平和協定이 締結되는 段階이므로 對內的인 防衛産業과 平和産業의 均衡維持 方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爲해서는 軍의 精銳化와 過多한 軍事費를 再生産費로 轉換시키기 爲한 對策이 同時에 講究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끝으로 社會問題에 있어서 社會的인 福祉가 完熟될 수 있도록 社會的 價値의 均等配分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는 點이다. 이를 爲하여는 地域間, 階層間의 所得分配의 편차를 해소시키고, 福祉型豫算과 社會保障制度를 完備해야 할 것이다.

4. 政治的 單一化: 第4段階

가. 對北 關係

韓半島의 統一의 意味를 全領域에 있어서의 實踐的인 統合의 概念으로 把握할 때 第4段階는 部門別統合이 이루어져 綜合되는 段階이다.

따라서 앞에서 서술해온 段階別 對北, 對內的 側面的 엄격한 区分이 이루어 질 수 없는 段階이다. ■러므로 全體的인 交流戰略 構圖와 一致시키는 意味에서 便宜上 그 內容을 分類하고자 한다.

우선 對北關係에 있어서 第4 段階의 目標은 北韓地域內에 自由主義的 統合準備秩序를 形成하고 그러므로서 궁극적으로는 韓半島의 單一統合政府 即 大韓民國 統一政府를 實現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目標을 爲하여 戰略의 展開方向은 다음의 세 가지 部門에서 考慮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政治問題이다. 이것은 궁극적인 韓半島의 單一民族國家 (大韓民國統一政府)를 形成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單一民族國家를 形成키 爲하여

- ① 自由, 平等, 보통선거 實施基盤을 造成하고
 - ② 上着人口比例에 依한 南北韓 總選舉의 基盤造成
 - ③ 代議民主政治의 實現을 促求하는 등의 問題를 생각할 수 있다.
- 이러한 自由民主政治秩序의 基盤을 造成하기 爲하여는 南北住民의 國民의 民主政治意識이 啓發이 前提되어야 함은 勿論이다.

둘째로 經濟問題이다. 4 段階의 보다 主軸이 되는 分野는 經濟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段階에서 가장 顕著히 南北을 共同社會로 느끼게 하는 것은 經濟單一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3 段階에서 發展되어온 經濟的 協力 내지 共同事業이 4 段階에서는 經濟共同體 形成과 經濟的 統合機構의 機能的 自律化에 由 發展되는 것을 想定할 수 있다. 이러한 發展은 機能主義的

統合接近方法에서의 model case 이기도 하다.

셋째로 社会問題이다. 前記한 經濟問題에서의 經濟的 單一圈 形成과 併行하여 南北은 社会的 單一文化圈이 形成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 ① 歴史的인 單一意識의 確立
- ② 北韓국민의 自由主義的 生活양식에 對한 確固한 認識과 受容
- ③ 매스콤機構의 改革 및 福祉指向的인 社会體制의 確立
- ④ 傳統的인 文化, 풍속, 慣習을 現代的으로 開發, 保存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나. 對外 關係

4 段階의 對外關係는 對外的인 韓半島의 單一國家體制를 構築하기 爲한 既存關係의 再調整 및 諸般活動의 單一化를 期하고 그러므로서 韓半島의 統合單一政府로서 對外政策을 實施하는 것을 基本目標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目標을 達成하기 爲하여는 다음과 같은 戰略이 展開되어야 할 것으로 豫想된다.

첫째로 國際機構面에서의 戰略이다. 이것은 UN을 비롯한 諸般 國際機構에 單一國家代表로 加入하는 努力이다.

둘째로 條約面에서의 戰略이다. 이것은 既存 韓半島의 2元的 構造에서 縮結되었던 諸般 對外條約 및 協定·約定 등을 一元的 構造로 轉換시키는 努力이다.

셋째로 公館活動面에서는 單一公館制로 轉換하는 努力이다.

以上の 세가지 側面은 이것이 3 段階에서 부터 持續的으로 試圖

되어야 할 性質의 것이긴 하나 條約關係에서 單一化는 보다 세
부적으로 戰術이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다. 對內關係

第4段階의 對內關係는 前記한 對外關係와 特別한 差異가 있을 수
없다. 다만 民族共同體 形成을 爲한 基盤造成과 韓半島의 單一統合
政府의 實現이라는 基本的인 目標을 爲한 韓國國民의 國民的 基盤을
튼튼히 해야한다는 것은 分명한 事實이다. 即 政治問題에서는 自由
總選舉 基盤造成, 經濟的으로는 統合經濟體制 形成, 社會的으로는 福祉
指向的 社會體制 確立, 軍事的으로는 統合防衛體制를 形成하는 것 등
이다.

[註]

註 1) 南北統一을 위한 經濟的側面에서의 構圖는 다음과 같이 說明될 수 있을 것이다.

※ 南北交流戰略의 經濟的接近構圖

→ 南北韓 「競爭」 關係 ←	→ 南北韓 「協助 單一化」 關係 ←		
1 段 階	2 段 階	3 段 階	4 段 階
經濟國力の組織化段階	相互競爭現實化段階	相互衡平(補完)段階	經濟統合段階
< 經濟發展 > ————— 도약단계 < 緊張緩和 > —————	持續成長과 衡平 ————— 大衆소비시대 戰爭物資의 共同管理 ————— 戰爭産業의 平和産業 經濟交流의 擴大 ————— 分業化(持化)	經濟交流의 擴大 ————— 經濟統合 品目이 多樣 競爭이 現實化 資本의 交流 및 導入 일선 勞動의 交流	經濟統合 ————— 經濟統合 平和産業體制構築 —————
※ 經濟交流의 試圖 維持 品目이 制限	※ 經濟的 優越性 誇示 假 位力量의 維持	※ 相互經濟的 利益 追求 同時에 經濟的 相互 依存度를 提高	※ 南北經濟單一圈 形成

註 2) 對外活動共同步調分野는

(1) 社会文化分野

(2) 經濟分野

(3) 政治, 軍事分野로 大別되며 各分野는 또한

① 共同事業面

② 國際機構面

③ 在外公館面으로 分類할 수 있다. 各分野의 具體的 內容은 다음의 表와 같다. 国土統一院, 南北對外活動共同步調方案

1973, PP. 31 ~ 35

(1) 社会文化分野

区 分	分 野	内 容	備 考
共 同 事 業 面	(가) 文化芸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古典共同発表会 ○ 共同映画製作(古典文化共同紹介) ○ 共同文化센터建立(海外弘報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團結 誇示 ○ 民族共同 利益追求 및 窮極的 統一指向
	(나) 體 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際競技共同出戰 및 共同 応援團構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一指向에 寄与

区分	分野	内 容	備 考
	(㉔) 交通・通信 (㉕) 学 術 (㉖) 觀 光 (㉗) 言論出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单一올림픽팀構成 ○ 非武装地带内 国際水準級 共同競技場建立 ○ 個人技, 記録技共同樹立 ○ 国際航空의 南北連結 (東京· 모스크바航空路) ○ 海外民族文化共同研究 (다가 마쓰쓰가古墳研究) ○ 海外共同觀光团構成 및 팜 플렛發刊 ○ 韓国古典共同出版 및 海外展示 	
国 際 機 構 面		(㉘) 同時加入機構에서 南北韓 相互協力 ○ 国際올림픽委員會 南北混成 单一팀構成 ○ 国際科学聯盟理事会 (㉙) 同時加入機構에서 南北混成 单一加入 ○ 世界仏教徒会	

区分	分野	内 容	備 考
		<p>(다) 单独加入機構에서 誹謗活動 中止 및 共同利益 守護立場堅 持</p> <p>○ 두 개의 韓國을 結果할 國際 機構에 對한 加入試圖拋棄, 但 읍서 버 派遣讓解</p>	
在 外 公 館 面		<p>(가) 南北相互協力</p> <p>○ 韓國人(演芸, 體育人等)의 소련방문시, 北韓駐소大使館의 協調要請</p> <p>(나) 相互敵對活動中止</p> <p>(다) 海外弘報活動上의 相互誹謗中 止</p> <p>○ 相互誹謗禁止條項(南北調節委 合意事項)의 國外擴大</p> <p>○ 體制宣傳을 目的으로 한 弘 報活動 相互中止</p> <p>○ 民族文化, 弘報活動強化</p> <p>○ 共同弘報센터 運營</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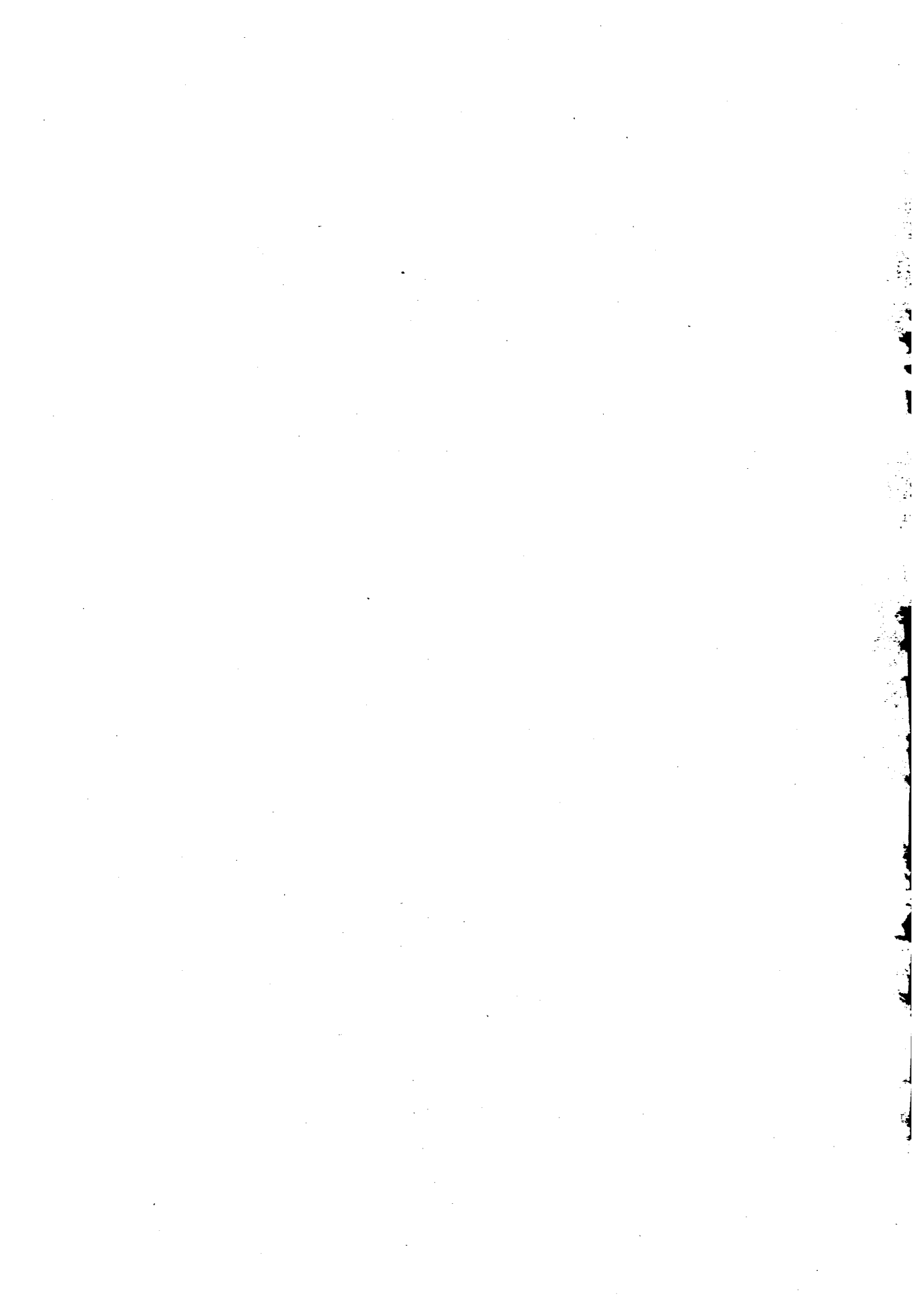
(2) 經濟分野

区 分	内 容	備 考
共 同 事 業 面	(가) 金剛山共同觀光開發 (나) 海外共同商品 展示場 開設 ○ 共產圈 } 交換展示斡旋 및 實施 ○ 自由圈 } (다) 仲介貿易 (리) 共同漁撈 및 魚市場開設 (마) 自由貿易市場開設	○ 民族團結誇示 ○ 民族共同利益追求 및 窮極的統一指向에 寄與
国 際 機 構 面	(가) 同時加入機構에서 南北相互敵對活動中止 및 相互協力 ○ 아시아, 아프리카 經濟協力 機構 (나) 單獨加入機構에서 敵對誹謗活動中止	
在 外 公 館 活 動 面	(가) 南北相互協力 ○ 韓國의 對東歐圈 貿易開始 境遇 東歐駐屯 北韓公館의 行政的 協力要請 ○ 南韓이 東歐에서 商品展示會 開催境遇: 北韓公館協力要請	

(3) 政治, 軍事分野

区 分	内 容	備 考
共 同 事 業 面	(가) 南北相互協力 ○ 韓日間 独島領土權 紛争境遇 共同對處 ○ 韓・中・共同國境線 紛争境遇 共同對處 ○ 大陸棚管區處理에 對해 共同 協力	
國 際 機 構 面	(가) 유엔機構에서 第3國을 通한 相互誹謗中止 (나) 同時加入 機構에서 相互敵對 活動中止 및 相互協力 摸索	
在 外 公 館 活 動 面	(가) 在外既存公館現狀凍結 ○ 相對方의 既存公館設置國에는 反對便은 代表部 또는 領事 館設置許容 但, 大使館 設置 反對	

註 3) 經濟問題는 本章(註1)을 參照.



第 5 章 結 論

第 5 章 結 論

本 研究는 南北間의 諸般 類型別 交流 - 體育交流, 經濟交流等 - 戰略을 展開하기 爲하여 韓半島 內·外의 諸般 狀況에 對한 豫測과 이에 基盤한 變數의 處理를 通하여 一括된 段階別 交流戰略의 構圖를 設定하는데 目標을 두었다. 그러기 爲하여 첫째로 統一目標 時期까지의 狀況豫測을 몇가지의 根拠에 立脚하여 試圖하고 同時에 理論的 接近이 갖는 統一과 의 關聯性을 一次的으로 檢討하였다.

둘째로는 對北交流戰略이 特定한 一方的인 政策만으로 不可함을 指摘하고, 따라서 最少한의 制約變數 - 國際情勢, 北韓情勢, 對內情勢 - 를 能動的으로 如何히 處理할 것인가를 考慮하여 各 側面에 對한 重要한 方向을 提示하려고 努力하였다. 그리고 끝으로는 以上의 諸要素를 一括하여 段階別 交流戰略 構圖를 設定하므로써 統一에 對한 交流接近方法面에서 暫定的으로나마 하나의 基準을 提示하려고 意圖하였다.

韓半島의 統一을 交流를 通한 機能的인 統合의 實現으로 生覺할 때 機能的分野의 接觸·交流가 北韓에 얼마나 說得力이 있을 것인가는 疑心스럽다. 뿐만아니라 交流戰略 自体가 北韓社會를 開放化하고 北韓社會를 自由化에로 變質 誘導키 爲한 것이라는 點을 北韓이 認識할 境遇 南北의 關係가 여하히 變更될 것인가도 測定키 어렵다. 그리고 北韓이 南北交流에 對하여 消極的인 態度로 一貫할 境遇 여기서 脫皮시키기 爲해 支拂되어야 할 代價카 - 드는 그

程度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도 現在로서는 疑問이다.

다만 南北이 統一을 向한 對話를 摸索하고 또 이것을 發展시키려는 努力을 繼續할 것이라는 前提下에, 그리고 國際政治秩序가 韓半島의 平和的 共存을 追求할 境遇에 南北交流는 그 意義를 찾을 수 있다.

交流戰略은 漸進的인 戰略이다. 이것은 무수한 試行錯誤를 겪으면서 進展될 것이라는 根本假定에서 出發할 境遇에 그 妥當성이 認定될 수 있다. 그러기 爲해서는 南北의 對話가 무수한 決裂의 危機를 反復할 것이라는 것을 豫想할 수도 있다.

